금주의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사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남은 생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3-1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19년 4월 13일 (토) 제 1726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 본지 발행인

잘 죽지 않는 노포(老鋪)를 넘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LA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타의(他意)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기술과 경영의 힘으로 하늘 길을 비롯 물류(物流) 한국의 길을 열었다는 조양호 회장이나 대한항공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이렇게 인재(人才)와 기업이 쉽게 흔들려서야 되겠냐는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순간에 사라진 인재와 대기업들도 적지 않고, 단명(短命)과 무명(無名)의 자영업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부지기수(不知其數) 이다.

노포(老鋪) 문화가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는 뿌리내릴 수 없는가. 노포란 일본에서 몇 대째를 이어가는 오래된 가게를 일컫는다. 세월이 가고 비바람이 불어도 잘 죽지 않는 가게가 노포이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는 705년에 세워진 "게이운칸 료칸(숙박시설)"이다. 지금도 예약은 필수이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포이다. 미국에는 1753년부터 이어온 레스토랑 "The Pirates' House"가 가장 오래 된 노포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1896년도에 세워진 "두산"이다. 추억의 "활명수(1897)"와 이름이 살짝 아쉬운 "몽고간장(1905)"도 있다. 이민 사회에서 오래된 역사는 일반기업이 아니라 교회, 하와이에 세워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1903)"이다.

노포의 핵심에는 인재가 있다고 한다. 최고의 노포에는 최고 인재가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한국은 인재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지가 이미 오래인데, 그나마 어렵사리 자수성가(自手成家)한 인재들을 뚝뚝 꺾어 버리는 매몰찬 문화의 폐해(弊害)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노포의 원조(元朝) 격인 일본 노포에는 아홉 가지 인재 육성비결이 있다고 한다.

1)최고 경영자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선다. 2)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키운다. 3)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 4)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과거에서 배운다. 6)지켜야 할 고집은 지킨다. 7)교육효과를 경영성과로 연결시킨다. 8)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9)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 아홉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일컫는다. 인재는 매사에 서두르지 않으나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는 부지런한 자임을 말한다. 인재란 해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알았는지(?) 과거에서 잘 배우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여 과감히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며,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지는 것임도 일러주고 있다.

한인 이민사회는 인재가 자라날 토양(土壤) 인가? 인재를 가르칠 멘토(mentor)나 그 가르침을 수용할 멘티(mentee)는 충분히 있는가? 한인이민교회에는 영적기업(靈的企業)이라 할 이민 교회를 섬길 인재군(人才群)이 충분한가? 이민교회 1세대 지도자들의 퇴장은 벌써 시작되어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혁혁(奕奕)한 역할과 공로는 말로 다할 수 없다. 그 중 인재를 키우는 일은 어떠했을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워 그로 가나안 정복의 선봉(先鋒)에 서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다음 지도자로 키우지 못해 먼 훗날 바벨론 유수(幽囚)의 단초(端初)를 제공하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민교회의 1세대는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모세에 가까웠는가, 여호수아와 비슷했었나? 적절하고 예리한 질문 같으나 우문(愚問)이기도 하다. 노포가 인재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心血)을 기울이고 있다면, 교회는 인재양육을 넘어 부활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교회의 문제는 인재 고갈(枯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능력의 부재(不在)이다. 고(故) 안이숙 사모님의 책 가운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이 있다. 책 제목부터가 절대희망이 아닌가. 물론 그 내용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절절히 보여준다. 죽음을 죽이고 생명을 부여한 부활의 능력은 노포의 인재양육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간단(間斷)없는 인재양육으로 영원을 꿈꾸는 노포가 즐비하다. 그들의 꿈과는 달리 언젠가 노포는 인재부재와 함께, 그리고 역사의 단절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수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된다.

자칫 노포만도 못한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까 삼가 조심하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자. 교회 앞에 그 어떤 세력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제압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잘 죽지 않는 노포를 넘어서 결코 죽지 않는 교회가 있다.

초 대 시

다시 하늘이 열리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나뭇결 사이 바람 일듯
하늘 열려 빛이 임하고
그렇게 오시다.

솟구쳐 올라도 닿을 수 없고
깊이 들어가도 찾을 수 없는
거기서 오시다.

밤을 이긴 빛의 힘
무거운 돌문 밀치고
캄캄한 무덤 열었다.

절망 젖은 눈물 한숨뿐인 낙심
돌문같은 인생들 활짝 열린 아침.
아, 오늘은 부활의 날.
그렇게 잠잠히
새벽 열고 부활로 오셨다.

숨결처럼 다가와
다시 부어주실
부드럽고도 강한 사랑이여.

아, 부활이다.
멸시 조롱 채찍 고난 그렇게 마침내
마지막 죽음을 지나더니 이뤄내신 사랑

오늘 이렇게 다시 하늘이 열리다
하, 찬란타 이토록 빛나는 사랑
부활,
이토록 퀄퀄 넘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2면

시 론
민경엽 목사

3면

부/활/절/설/교
이국진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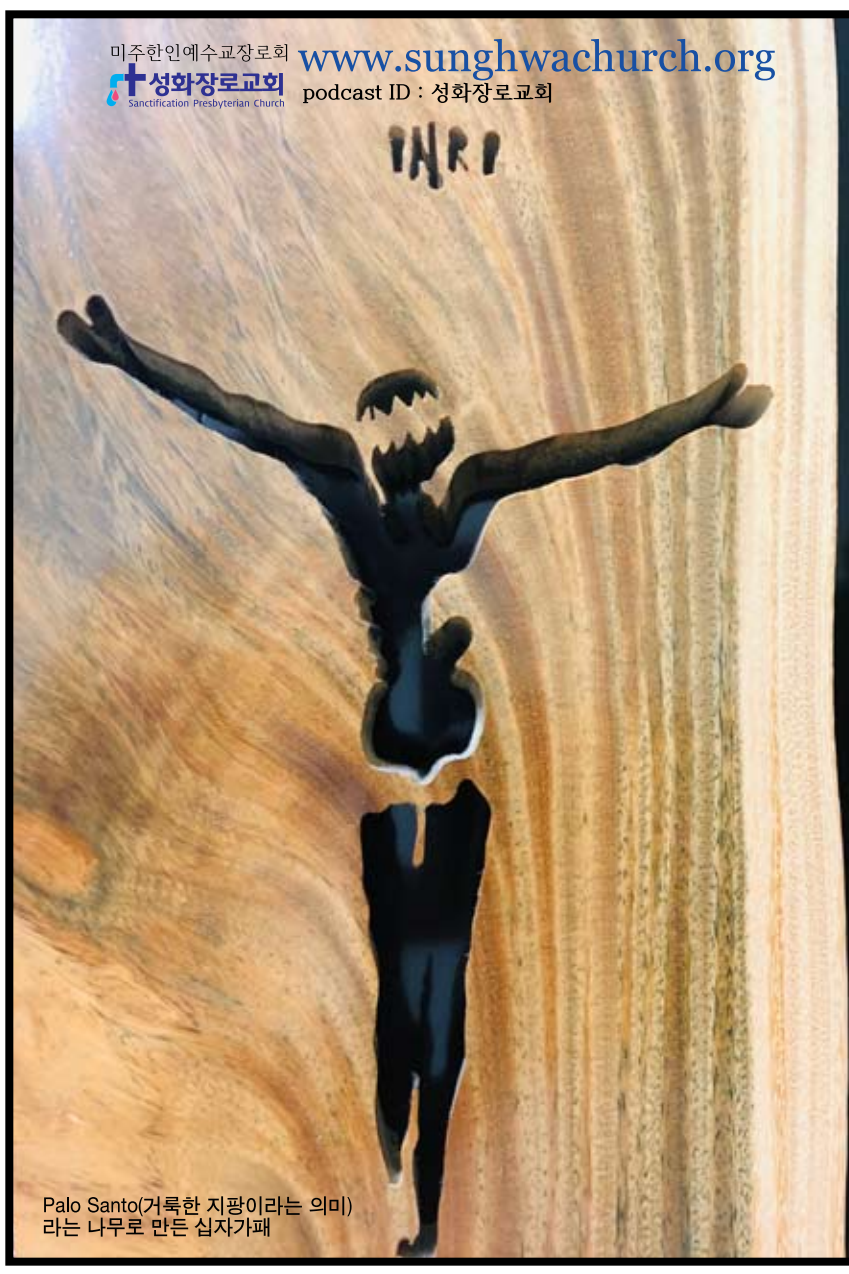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ever 우표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www.sunghwachurch.org
podcast ID : 성화장로교회



Palo Santo(거룩한 지팡이라는 의미)
라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패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 고난주간 늘 하던대로 특별하지않은 새벽기도회
- 고난묵상 새벽기도회 월~금 05:30
- 부활소망 새벽기도회 토 05:40
- 성금요예배 금 8:00p.m.

■ 부활 축하 연합예배 오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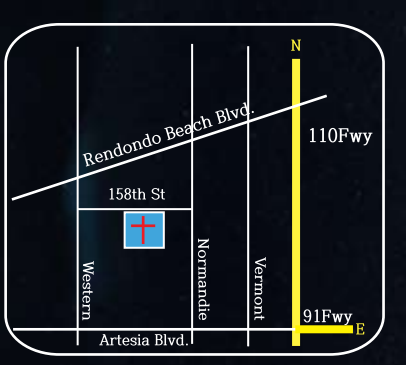
그 때 그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과 생명이 나타났다.

고난은 죽음에 도착해야
마침내 끝이 나고
드디어 알게 되는 비밀.
죽어야 사는 생명 원리.

고난에 지친 인생
고통에 매인 인생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마침내 만나는 영생의 길.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말고
숨어있는 새생명을 찾으라!

말씀 : 이 동 진 담임목사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시 론

삶이 너무 느슨해져 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이란 재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며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말한다. 원래 사순절이 카톨릭에서 시작된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개신교 전통으로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것은 굳이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순절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신자는 모름지기 항상, 일년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항상 그런 스피릿으로 살아야 하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더욱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실천하다 보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주일을 지키는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긴 하지만 주일을 지킴으로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십일조를 내는 정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지만 십일조를 냄으로 이런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무슨 전통으로 얽매여 지킬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런 시간들에는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낸다면 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사순절에 기본적으로 노력할 것은 절제의 미덕이다.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정결하게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원래 초기 기독교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추구하였었다.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기본이다.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강조하여 저녁에 한 끼만 식사하였다.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다. 연극이나 무용, 오락 등도 금지시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도 삼가게 하였다. 대신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권장하였다.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이런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은혜롭다. 예를 들어 한 끼라도 금식한다든가, 좀 더 기도 시간이나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경건한 젊은이들은 이 기간 카페인이 들어간 일체의 음료를 마시지 않는가 하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나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느슨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뭐든지 제 맘대로 다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방종한다. 일탈이 일상화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탈세하고, 서슴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 주일날도 함부로 빠진다. 말은 뻔지르르하지만 신앙적인 의무 실천은 뒷전이다.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한다. 너무 맥없이 무너져서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모든 것들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 기간에는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삶에 적용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분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썩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사순절은 참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부활주일, '기쁨의 50일' 축제로 시작한다!

'2019 부활주일 맞아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 회복 필요성 제시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사순절이 우리들의 과한 욕망을 제하고 죄에 물든 신앙을 정제하는 기간이었다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궁극적 소망을 되새기는 날이다.

부활절에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기쁨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날 교회가 세례를 베풂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기쁨이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에 세례후보자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Lenten Catechesis)하고 이를 통과한 이들에 한해 토요일 밤, 즉 부활절 전야를 지키며 기다렸다가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다.

온 교회가 사순절의 금식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림과 동시에 부활주일에 세례 받는 이들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했다. 따라서 부활절 승리의 외침은 세례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들의 기쁨과 더불어 온 세상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주일로 시작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로 마치는 50일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로서 대림절과 사순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다.

부연하자면, '기쁨의 50일(The Great Fifty Days 혹은 Eastertide)'은 부활사건이 유월절(Pascha) 때 일어난 이유에서 '파스카 절기'라고도 부른다. 원래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Pentecost)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재 개혁교회들은 유대인의 오순절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의 혼돈을 막기 위해 이 기간에 대한 명칭을 '기쁨의 50일'로 부르는 것이다.

'기쁨의 50일'은 교회가 탄생하고 3세기 동안 유일한 절기로 지켜오다가 4세기에 이르러 분할되기 시작했다. 파스카 팔부(Pascha Octave)의 첫째 날이 되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40째 날이 되는 '승천주일'을 거쳐 마지막 50째 되는 날인 '오순절 성령강림주일'로 끝이 난다. 다만, 정교회는 지금도 승천주일까지 40일을 부활 절기로 지키고 있다. 파스카 팔부는 '흰옷을 입는 주간'으로서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8일 동안 교리문답을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처럼 부활 절기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연(年)주기로 재현하는 교회력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을 하나의 큰 잔치로 하여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7주 동안 계속되는 부활의 기쁨보다 사순절의 참회와 십자가의 고난에 치우쳐 이 절기가 갖는 완전한 승리와 기쁨은 부활주일 하루의 잔치로 그치고 만다. 교회가 시작되고 주님의 부활을 매년 기념하던 초기 크리스천들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부활주일 하루의 행사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7주 동안 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부활의 신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을 '기쁨의 50일'로 회복해야 한다.

숭실대 권연경 교수는 이미 이러한 신학적 또는 교회력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필자는 자주 우리의 '신학적 편식'에 관해 불평을 하곤 하는데, 그 편식의 가장 치명적인 희생물 중 하나가 부활이 아닌가 싶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는 열광하지만 부활에는 당황한다...교회에서도 십자가와 대속의 은총을 노래하는 찬송은 사시사철 불리지만, 부활을 환호하는 찬송은 부활절만 지나면 금방 '철 지난' 캐롤처럼 어색하다. 예수는 고작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로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가 더 생생하고 부활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손님 같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에서는 고향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빈 무덤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우리의 영성은 과연 건강한가?

역사적 견지에서 말하자면, 교회의 실질적 출발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보여 주듯,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끝장내는 절망이었다(눅24:21)...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었다. 절망한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문득 얻게 된 어떤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부활의 충격, 곧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와의 맞닥뜨림이었다. 이 만남 속에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이 부활의 빛 아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당연 초대 교회 최대의 키워드는 부활이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목사도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구원은 몸의 부활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그 사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라고 들었다.

존스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몸의 부활이 없고 영적인 부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15:17).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처음 왔을 때 전파한 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결론으로, 부활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세상을 기쁨으로 춤출 수 있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지 그날 하루만 신앙인들끼리 기뻐하는 날이 아니다. 부활절이 됐다고 삶은 계란 나누는 것만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부활의 의미와 정신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생명의 축제를 여는 것이 부활의 문화다.

이제 부활주일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상하며 생명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기쁨의 50일'로 만들 때다.

〈편집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 성 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창설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국제 구호 NGO World Share USA가 창설 15주년과 사무실 이전을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정중히 초대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후 5:00
장소 아로마 윌셔센터 5층 대연회장
3680 Wilshire Blvd.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내용 찬양예배, 축하행사, 만찬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테이블 리더 혹은 강태광 목사에게 4월 20일(토)까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 행사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부·활·절·설·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확실한가요?

이국진 목사
(전주 예수비전교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만고불변의 진리에 역행하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1세기 사람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 당시가 오늘날과 비교해볼 때 미개했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삼하 12:22-23). 아무리 고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 상태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였을 뿐이었던 것이고, 차가운 무덤의 공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종종 뉴스에 보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려고 했지만, 다시 깨어나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야기들이 보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거나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실에 누워 있다가 운명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모든 피를 흘렸고, 결국 그 죽음을 로마의 군사들이 확인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요19:33).

더 나아가 로마 군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요19:34).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여 기록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물이 나오는 이유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은 메드럴 박사의 설명을 자신의 책, "예수는 역사다"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의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늑막삼출이라고 불리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대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심낭삼출과 늑막삼출-가 나왔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왜 피와 함께 물이 같이 나왔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불변의 법칙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러한 주장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토양에서 갑자기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어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유대교의 토양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뿐입니다. 부인할레야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동네에서 축출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의 말씀(21:23)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그런 사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전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20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 뒤로 계속해서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좋을까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불신하고 복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기 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준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특 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한달 입학비 면제 이벤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4월 한 달간 입학정보 신청 및 온라인입학원서를 제출하시는 분에게 입학시 입학비 $80을 면제해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A 확장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75)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카카오톡: gmu3000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보디올에서

얼마 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오기 위해 하선했던 항구 보디올(행28;13)을 다녀왔다. 현재는 뽀주올리(Pozzuoli)로 지명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지역이고 동일한 바다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할 말이 너무 많다는 듯 출렁이는 몸짓으로 길손을 맞이한다.

성경에는 바울은 보디올에 내려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한 주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행28;14)고 했다. 당시 보디올에는 인구가 14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당시 보디올은 로마에서 가장 큰 무역항으로 전 세계의 배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듣고 그를 기다렸던 보디올의 성도들, 그들의 초청을 받고 한 주간씩이나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쯤일 까하는 마음으로 보디올의 항구를 보듬고 있는 타원형 도시를 한참이나 서서 둘러보았다.

당시 이곳은 로마 귀족들의 최고의 별장들과 황제들의 별장들도 밀집되어 있었다. 네로의 별장도 물론 빠질 수 없었고.... 또한 잘사는 자들에게 건너뛸 수 없는 것이 혀끝을 충족시켜 일이다. 그것은 좋은 술과 맛있고 고급스런 음식일 것이다. 특권층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이곳 바다는 2천년 전에 벌써 양식장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 양식장은 현대의 양식장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현대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

신선한 해물을 특권층의 식탁에 올리기 위한 발상은 놀랍기만 하다. 바울은 이곳에 하선하여 한 주간을 자신을 초청한 성도의 집에서 지낸 후에 아피아(Appia) 가도로 200Km를 걸어서 로마로 갔다. 한 주간 가까이 가는 길이었기에 숙박하면서 갔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바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걸어서 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 중간에 야영을 하면서 말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782Km 로 40일 동안 완주하는 코스라고 한다. 그 길을 걷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신앙문제, 가족문제, 부부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장래문제 등등. 그러나 아피아 가도는 성경적 역사로 볼 때 훨씬 더 의미 깊은 길이다.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디도, 그레스게, 오네시모 등등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주교 클레멘트의 편지에 의하면 베드로도 이 길을 걸어서 로마로 들어왔다.

한 주간을 오로지 바울과 그를 협조했던 복음의 일꾼들을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더더욱 이 길을 통해 파리로 가던 중 스콜라 철학의 태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4-1274)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길이기도 하다. 바울이 숙박했을 지도 모르는 삼관은 현재 쓸쓸하게 돌무덤으로 남아있다.

그 돌무더기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냄새를 맡아보며 팔로 안아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 싶다. 바울과 위대한 영적 선배들이 땀 흘리며, 또는 복음에 감격하여 눈물 뿌리면서 걸어갔던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의 유서 깊은 길,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하고 싶다. 죽기 전에....

chiesadiroma@daum.net

태아 심장이 뛰면, 중절 못한다!

이코노미스트,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낙태반대론자들 소개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 됐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됐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6주 부근으로 당기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주차는 마지막 생리의 첫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임신 6주 때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따라서 소위 "심장박동 법안"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금지법이 될 수도 있다(Why red states are passing laws banning early abortions).

"심장박동 법안"은 지난 3월 22일 조지아 주 상원을 통과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3월 21일에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미시시피 주지사가 비슷한 법안에 서명을 했다. 올해 안으로 십여 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절반 정도는 이미 상하원 가운데 한 곳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지역에서 임신중절권 싸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임신중절권 24주 합법화서 6주 도전
"심장박동 법안" 조지아주지사 서명 대기

1973년 이후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도입함으로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상담과 시술 사이 유예 기간이나 질 내부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주 전체에 임신중절 클리닉이 한 곳 밖에 없는 미시시피 주 등 시설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꽤나 효과적인 조치였다.

이런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왜 이제와 '로 대 웨이드'를 직접적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일까? 이달 초, 켄터키 주에서는 "심장박동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하루 앞둔 날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시시피 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들이 이런 접근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정치적인 계산이다.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 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직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 조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아기들의 생명을 위해 싸웠다'고 말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실제로,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조치"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언젠가 이들 법안 중 하나가 현재 보수파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까지 올라가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판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와 브랫 캐버노는 '프로-라이프(pro-life)'임을 분명히 한 보수파 크리스천이지만,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역시 보수파이지만 45년 역사를 가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최근 로버츠 대법원장은 두 번의 파격적인 판결로 보수파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2월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과 함께 지역 병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에게만 중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루이지애나 주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12월에는 캐버노 대법관도 함께 가족계획협회의 주정부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심장박동 법안"이 언젠가 대법원에 닿을 수도 있다. 특히 하급 법원에서 의견이 갈리면 결국은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프로-라이프'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이다.

강경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심장박동 법안"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다.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간의 심장박동을 두고 "인류 시초 이래 보편적인 생명의 특성"이라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수치스런 비밀이 죄책감보다 더 힘들다

뉴스위크, 특정행동 둘러싼 비밀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보도

수치스러운 비밀이 죄책감이 큰 비밀보다 더 심한 괴로움을 초래한다. 심리학자들이 학술지 '이모션'에서 밝힌 내용이다. 연구팀은 어떤 감정이 특정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비밀에 부칠 가능성이 가장 큰지 알아보고자 했다. 특정 행동을 비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비밀의 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최초의 실험이었다(SHAMEFUL SECRETS WORRY US MORE THAN GUILTY SECRETS, PSYCHOLOGISTS BELIEVE).

관련 논문의 주 저자인 컬럼비아대학 교수 마이클 L. 슬레피언 박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비밀을 갖고 있으며, 그런 비밀이 우리의 웰빙과 파트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울증과 불안증뿐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밀이 어떻게 그런 해를 끼치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초점은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고 슬레피언 교수는 설명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자의식적인 감정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분노와 두려움 같은 기본 감정은 외부 사건과 관련 있지만 그와 달리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아를 중심으로 생긴다."

수치심은 무력감에서 생기므로 건강 해쳐
부정적 평가 피하려는 죄책감과는 달라

우리가 비밀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거나 당혹스럽게 여길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추론했다. 예를 들어 죄책감은 도덕적 판단과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는 것과 관련 있는 반면 수치심에 기초한 비밀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비밀을 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이런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연구팀은 4건의 실험을 통해 모두 1000명의 성향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부 합해 6000건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연구팀은 사람의 마음이 죄책감과 관련된 것보다는 수치스러운 비밀에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가정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비밀을 돌이키고 비밀이 생각날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또 얼마나 자주 자신이 가진 비밀을 돌이키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파트너가 모르는 비밀을 떠올려보고 그 비밀로 인해 자신이 위축되고 쓸모없으며 무력하다고 느끼는지(수치심과 관련된 감정) 아니면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지(죄책감과 관련된 감정) 묘사했다.

실험 결과, 자신의 비밀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죄책감을 갖는 사람보다 그 비밀을 훨씬 더 자주 생각하며 괴로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연구에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신 질환과 관련된 비밀을 가진 참가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죄책감이 가장 큰 경우는 거짓말했거나 상대방의 맘을 상하게 했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과 관련된 비밀을 가졌을 때였다. 그러나 연구팀에 따르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둘 다 비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비밀이 자신의 행동에 반영되며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죄책감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죄책감으로 의도적으로 전환하면 자신의 비밀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새롭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슬레피언 교수의 조언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다른 연구 결과와 맞아떨어진다. 학술지 사회·임상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들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소외감이 줄어들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림] 본지 정기휴간에 따라 4월 20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반 낙태' 영화에 R등급 매겨 기독교단체들로부터 비난받는 미국영화협회(MPAA)

'Unplanned(계획되지 않은)'이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낙태 대기업 Planned Parenthood에서 고위 간부(Director)였다가 '친생명(pro-life)' 옹호자가 되는 한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으며,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이 영화가 "R"등급을 받는 영화들처럼 욕설, 유혈이 낭자한 장면, 폭력, 섹스 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MPAA위원회는 낙태에 관련된 피가 보이는 세 개의 장면을 이유로 이 영화 등급을 "R"로 매겼습니다.

Unplanned는 미 전역 1,059개 극장에서 3월 29일부터 상영됐으며 "R"이라는 잘못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6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 관람을 하였고, 바이블벨트(Bible Belt)로 알려진 중부의 주들은 주말엔 티켓이 다 팔려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영화를 봐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Unplanned 영화를 반대하고 Planned Parenthood를 옹호하는 반기독교 인권단체들의 온라인 서명운동과 수많은 주류 TV 방송에서 영화상영 선전을 REJECT(거부)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UNPLANNED 영화 상영은 현재 전체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UNPLANNED 영화등급, 무엇이 문제시 되었는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한 영화계의 일부 사람들은 MPAA 등급위원회가 낙태 반대 메시지가 담긴 영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공개서한을 발행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공개서한의 내용에 따르면, PG-13 등급 영화조차도 욕설에서부터 불필요한 성적 장면의 묘사, 살인, 그 밖의 눈을 가려야 하는 험한 그래픽들까지 모든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Unplanned" 같은 영화들은 쉽사리 PG-13을 받았어야 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등급이 잘못됐다고 서명한 공개서한에 서명한 영향력 있는 몇 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Godfather) 속편' 공동 제작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었던 그레이 프레데릭슨, 'Schindler's List' 공동 제작으로 같은 트로피를 받은 제럴드 몰렌, 영화배우 Kevin Sorbo, 블레이즈 신문사의 Glenn Beck, 미국 기독교법률단체의 대표자인 Family Research Center (FRC)의 Tony Perkins, 가수 Pat Boone, 전 주지사인 Mike Huckabee, 전 하원의원congressman Dana Rohrabacher, 마틴루터 킹 주니어의 조카인 Alveda King 등이 29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R등급을 받으면 등급만 보고 기독교 관람자들이 영화관에 오는 대신 집에 머물게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매우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며 영화 팬들에게 격려하기를 "The Passion of the Christ"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MPAA의 R등급을 무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개서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PAA는 베벌리힐스에 사는 부모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투표를 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가족에게 적합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그런 집단인가? 90210 우편번호(Beverly Hills)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미국의 다른 나머지 지역에 적용하지 말라!"라고요.

MPAA는 공개서한에 대한 답을 축소하자면, "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주제, 언어, 폭력의 묘사, 나체, 관능, 성행위 묘사, 흡연, 성인활동(즉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약물사용 등 모든 측면을 영화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한다…'Unplanned' 영화는 '불편하고 피투성이의 이미지'로 R등급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MPAA의 설명은 오히려 이해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자 항의입니다.

UNPLANNED 영화제작사는 누구인가?

Unplanned 제작사는 기독교단체에서는 잘 알려진 PUREFLIX 회사입니다. Pureflix는 Netflix와 같은 것이나 기독교 가치관이 담긴 어린이부터 온 가족들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만화, 교육물 다큐멘터리 등등이 수없이 많으며 창조과학의 대가인 Dr. Ken Ham의 Answers in Genesis 시리즈도 많이 올려놔서 아이들과 온 가족 교육의 기초(foundation)를 튼튼히 쌓아주는 창조과학 교육 시리즈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Pureflix.com은 첫 달은 공짜이고 달에 7.99달러 밖에 안하기에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맘 놓고 보여줄 수 있는 Pureflix.com을 subscribe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Pureflix는 주류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God's Not Dead)" 시리즈, War Room, I am Not Ashamed, Lord of the Ring에 나왔던 주인공의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온 Do You Believe 등 수많은 수준급의 영화들을 배급하였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R등급의 영화를 배급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제작한 UNPLANNED 영화는 가장 나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할 때 피가 보이는 몇장면 때문에 R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등급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들은 단체로 티켓을 사서 금요일 첫날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는 교회들이 많아서 티켓들은 첫 주말엔 거의 매진(Sold Out)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생명'을 위해 이 영화를 기꺼이 세상에 내놓은 실제 인물(Abby Johnson)과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한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화내용은: tvnext.org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옥중서신에서 에베소교회와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을 아는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교회는 누가 세웠는지요? 그리고 누가 지도자인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이에미 현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제 1차 선교여행을 남갈라디아 지역(터키)을 중심으로 선교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으로 돌려보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유럽인 지금의 그리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선교하여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베뢰아, 아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지금의 터키)에서 3년간 사역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교역자와 빌레몬이란 평신도 지도자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레몬이 골로새의 사업가로 에베소에 출장차 갔다가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는 바울의 제자가 된 후에 얼마 후에

골로새교회는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시작

골로새,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지요 큰 사업가로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사용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1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집에서 자주 모였고 빌립보교회는 사도행전 16장40절을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고린도전서 16장9절을 보면 에베소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15절을 보면 눔바의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3세기까지는 별개의 교회당을 따로 건축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개가 리빙룸이 큰 저택을 가진 부유한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사실 부유하다고 집을 다 교회로 오픈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 프라이버시가 깨집니다. 물 대접, 식사대접 등 희생이 크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도 깨끗이 늘 치워야 합니다. 한두 번은 쉬워도 계속하는 것은 큰 믿음과 희생 봉사하는 섬김의 정신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봉사를 빌레몬은 불평하지 않고 훌륭하게 해냈는데 빌레몬만이 아니라 부인 압비아도 함께 불평 않고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온 가족 식구가 발 벗고 봉사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서 1장4-7절을 보면 그의 믿음의 교제를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 가진 물질로 선행을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온 교우들이 빌레몬의 섬김을 칭찬하고 그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믿음의 교제(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학자 라이트후트에 의하면 여기서는 '물질적인 상통')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그리스도께 영광). 나중에는 아들 아킵보가 골로새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부탄인(Bhutanese)

부탄인들의 사회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부탄인에 포함되는 티벳의 보티아(Bhotia), 동부 보티아로 불리는 샤르초프(Sharchop), 그리고 네팔인(Nepalese) 그 외 작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다. 그들은 거대한 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 대부분이 이 그룹에서 나온다. 다수의 우수한 사람들이 8세기에 티벳에서 부탄으로 이주해왔고 티벳 피난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그 나라로 들어왔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두고 있는 부탄은 매우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경치는 평평한 모래 평원에서 가파르고 우거진 숲, 히말라야의 바위산들 등 매우 다채롭다. 부탄인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원류로 알려진 그들은 길게 늘어진 눈과 두드러진 광대뼈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용감무쌍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천둥 드래곤(용)의 땅"이라는 의미의 "드루크 얄(Druk-yal)"이라고 부른다.

삶의 모습

부탄인 대부분은 농부다. 그들은 가족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 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만 한다. 농작물의 일부는 다른 필수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주식은 쌀, 감자, 야채다. 고기는 작은 양을 먹을 뿐이고 중동지역에서 사는 소인 야크(yaks)는 가족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

부탄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땅에서 살거나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산다. 그러나 좀 큰 마을에서는 집들이 밀집돼 세워져 있고 대부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칠해져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목재로 집을 짓고 추위를 막기 위해 진흙을 벽에 바른다. 집은 대부분 2층집으로 지어져 있지만 어떤 집은 4층짜리도 있다. 만일 동물을 키우는 가족이라면 가축은 1층 바닥에서 키운다. 지붕은 무거운 돌로 고정시킨 나무 슬레이트로 만들어진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이며 여성은 약 16세에 결혼하고 남자는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없으며 신혼부부는 신랑의 가족과 살거나 신부의 가족과 살지만 어느 쪽이 일손이 더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대가족제도는 부탄인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조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돌본다.

부탄 여성은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의 직물로 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키라(kira)"라고 불리는 긴 천 조각으로 몸을 빙빙 감고 은 브로치 한 쌍을 어깨에 꼽는다. 그리고 작은 재킷을 키라 위에 입는다. 남자는 긴 어깨걸이 로브(robe) 또는 "고스(gos)"를 입는다. 낮 동안은 고(go)라는 의상을 벨트로 조여 매서 무릎까지 닿게 하고, 저녁에는 잠자는 동안 밑에까지 내린다. 모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사원에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어깨 위에 경외의 뜻으로 스카프를 걸친다. 스카프의 색깔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신앙

티벳불교(라마교)의 한 교파인 "홍의교(Red Hat)"는 부탄인들에게 지배적인 종교다. 비록 거의 대다수가 불교신자이지만 전통적인 티벳 샤머니즘 신앙도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샤머니즘 숭배자들은 신, 악령, 조상의 영 등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가족들은 그들의 집에 불당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집은 불당보다는 작은 부처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단으로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제법 부유한 가정에는 정성들여 만든 제단과 램프, 향로 등 종교물품들도 구비해놓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국가와 고립돼 살아온 역사로 인해 부탄인들은 타민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선조들의 전통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현대의술(약)과 편리성 등이 필요하기에 더욱 변화하기 쉽게 되어가고 있다.

비록 부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시도되고 있지만, 그들은 고립돼 있으려 하며 복음에 저항적이다. 많은 중보와 선교의 노력들이 폐쇄적이고 전통에 묶인 벽을 깨뜨리도록 요청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미, 남북에 확고한 메시지

미국 정부가 4·11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양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동시에 발신했다. 우리 정부엔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에 대해선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강조하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재차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다"고 잘라 말했다.

진행자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한국이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이 '안 된다(No)'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한국)의 정서를 이해한다"며 "우리는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역시 한국에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 형식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는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확고한 비핵화 메시지를 받아올 것을 한국에 독촉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날"이라면서도 "엄청난 깜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 연례 행사에 참석,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확실하게 공유한 다음 북한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지금은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기반 위에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1차 목표는 북·미 중재가 아닌 한·미 공조 다지기에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여러 채널을 가동해 대미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버스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뒤 그해 7월 교체됐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를 시찰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경제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음주시 시동금지 첨단장치 개발 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첨단장비가 장착될 전망이다. 입김이나 피부 접촉만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 수치를 넘으면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아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이르면 내년 안에 트럭과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상용차량을 위한 제품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업체 연합(ACTS)' 대표 로버트 스트라스버거는 6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운전자의 입김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 알코올 감지시스템(DADSS)을 내년 말 안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장비는 법인차량과 딜러 옵션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CTS는 미국 자동차 업체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함께 DADSS를 개발해 왔다.

DADSS는 운전자의 입김을 적외선 센서로 분석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따로 입김을 불어넣을 필요 없이 운전대에 붙은 장비가 스스로 운전자의 날숨을 감지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터치 센서를 이용한 감지장치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운전자가 시동 버튼이나 운전대에 손을 대면 적외선이 피부를 투과해 모세혈관을 비춰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10대 운전자를 둔 부모를 위해 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을 막는 '무관용' 기능도 있다. DADSS 기술은 알코올 외에도 대마초 사용 여부를 감지하는데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장치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운전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동을 걸려면 운전자는 빨대에 오랫동안 대량의 공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정확도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장치 작동에 숙련된 운전자라도 실패율이 30%에 달한다. 사실상 성범죄자 대상 전자발찌와 같은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다.

DADSS가 실용화되면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의무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편의성과 신뢰성이다. 측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오작동이 잦을 경우 운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발진은 0.3초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종과 성별, 건강 상태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한 시험도 진행 중이다.

버지니아주 교통국은 지난해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DADSS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산불로 신음하는 지구촌 "기후변화가 원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4일 발생한 큰 산불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최근 들어 빈번하게 나고 있는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는 89명을 숨지게 하고 6만2000ha 가량을 태웠다. 5일 기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160배에 이른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으며, '100년 이래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고성 산불은 앞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화재와 몇 가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성 산불이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진 것처럼 캘리포니아 캠프파이어도 시속 48-80km의 거센 바람 탓에 초기에 불길이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 초기 진화율은 한동안 5-20%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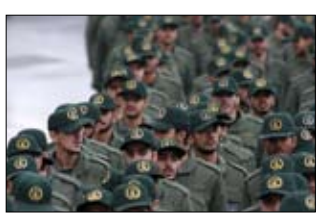
희생자들이 대피하는 와중에 불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두 산불의 공통점이다. 고성 산불으로 사망한 시민 2명은 모두 화재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화재 당시에도 대피에 실패한 희생자들이 불에 탄 승용차나 도로 위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7월 그리스 아테네 해안 도시 마티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100명 가량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 유아와 어린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서도 유례 없는 더위로 지난해에만 산불이 50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재 진압 작업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영동 지역은 3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현재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에 따르는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아테네 마티 산불 사태 당시에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말라버린 초목들에 불이 급속하게 옮겨 붙으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고 BBC방송은 보도했다. 제리 힌클 기후정책전문가는 "기후변화는 최근 들어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초목이 말라버리면서 산림은 화재에 더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미, IRGC 테러조직 지정…對이란 압박 '고삐' 바짝



미국이 이란의 정규군사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결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적성국 정규군사조직 전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의 테러조직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은 다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IRGC와 거래를 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부가 주도한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이란이 테러지원국일 뿐만 아니라 IRGC가 테러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정을 지원했으며 테러를 국정운영의 도구로 삼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미 검찰은 IRGC와 접촉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하는 개인과 기관을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가 조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세계 각지의 기업과 은행들은 이제부터 IRGC와 어떤 방법으로도 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확실히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의 불법적인 조치는 지역과 국제적 안정과 평화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동에 주둔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IRGC를 통해 시아파 테러조직을 지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IRGC는 미 국무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하시드 알사비를 지휘해 시리아 내전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에 나섰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RGC는 운송, 건설,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자회사 하탐 알안비야는 석유와 가스 사업은 물론 도로 건설, 통신망 운영 등의 사업을 독점한다. 고용 직원만 13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IRGC는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하면서 탄생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규군과 달리 최고 종교지도자의 지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무하마드 알리 지파리를 총사령관으로 약 15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구온도 2도 이상 오르면 투자수익 내기 어렵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투자자문사 머서(Merc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자들은 대부분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이 2도 미만인 경우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가치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부터 2030년 사이에 석유, 석탄, 가스, 전기 시설 부문이 중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손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고수익으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1. 이경선(1899-1949)

1937년 도미 나성한인감리교회 부목사 임명받고 1943년까지 사역
워싱턴주립대 조선어교수로 재직, 49년 북한에서 미 간첩으로 사망

이경선은 1899년 평안남도 순천군 효탄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농업학교를 거쳐 서울의 감리교 협성학교를 졸업하고, 7년간 진남포 중앙교회와 평양 류정교회를 섬겼다.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 산하의 동우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는 4, 5년간 이상촌 건설을 기획하고 용성 농촌직업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37년 5월에 이경선은 흑인 농민 교화 사업과 일반 종교교육 사업을 시찰하고자 도미했다. 그해 11월 1일 케논 감독이 상항 남감리교회 글라이드 메모리얼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회 동양인 선교연회를 개회하고 한인교회에 관하여 처리했을 때 이경선은 나성한인감리교회 부목사로 임명받았고, 본 교회 담임목사인 황사용을 도와 교회를 섬긴다.

같은 달 나성한인감리교회는 다수 청년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소녀들로 유년 찬양대까지 조직하여 새로운 면목을 가졌다. 같은 달 18일 저녁에 동 교회에서는 70여 명의 교인이 흥사단 사교실에서 모여 사교회를 열었다. 두 찬양대의 청아한 노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순서가 있었고, 특히 동 교회의 부인전도회가 양 찬양대를 위하여 다수한 선물을 주어 장려하는 뜻을 보였으므로 일반 교인들이 고마워하면서 화기 충충한 가운데 헤어졌다.

그해 이경선이 감사절의 사회를 보았다. 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년 찬양대와 유년 찬양대의 합주와 김엘시와 안숙자의 독창은 빼어났다. 그해 성탄절은 2, 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내 남가주 대학교회 예배당을 빌려 25일 오후 7시 30분에 성탄절 행사를 치렀다.

1938년 3월 20일에 국민회 주최로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었던 도산 안창호 추모식

1938년 2월 6일 한인감리교 예배당에서 이 암의 사회 하에 국민회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회 청년부 총회장 김필립에 이어 이경선도 연설을 담당했다. 다음 달 10일 오전 3시 30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경성에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경선이 도산 선생 영전에 올린 글이 그달 17일에 신한민보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다.

선생님,

참으로 가셨습니까? 저희들을 버리고 이대로 가셨습니까? 불효 문하생의 가슴은 지금 터질 듯하옵니다.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슬픈 생각, 흐르는 눈물, 오! 선생님, 참으로 가셨습니까? 사랑하는 나라 ... 를 두고 이대로 가셨습니까? 선생님, 지금 이천 삼백만 동포는 울고 있습니다. 삼천리강산의 산천초목까지라도 울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 가오리가? 앞을 내다보니 앞길이 아득할 뿐입니다...

선생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싸우심과 조선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진성으로 일관한 생활과 사업은 천추만대에 영원히 살아있어서 배달민족의 피와 살과 뼈가 될 줄을 아오며 인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불초 문하생에게 '묵언 실행자'라는 별명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옵니다.

저는 오늘부터 묵행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 선생님 선생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천 삼백만 머리 위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동지들의 머리 위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길을 밝히 가르쳐 주소서.

1938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성 한인장로교회는 담임목사 김성락 박사의 사회로 예배당 개전식을 거행했을 때 이경선 목사는 기도순서를 맡아 장감의 연합정신을 보여 주었다. 본 예배당은 성경 교수실, 관서실, 사교실 및 주방을 완비했다. 그해 12월 1일 이경선은 지난달 24일에 쓴 "흙 한 줌"이라는 글을 신한민보에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의 나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맑은 하늘은 높고 금풍은 소슬한데 정든 고국을 떠나 수만리 이역에서 가족 친척 친구 동포 그리운 강산이 모든 생각이 염두에 떠오를 때 하염없이 애틋한 심서를 금할 줄이 없다. 하물며 고국이 원수의 압박 밑에 감옥화 함과 이천삼백만 동포의 굶주리고 헐벗은 참상을 상상함이랴.

며칠이 지나면 감사일이다... 나는 금년 감사일을 어떻게 지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 C와 S 고학생 친구들이 이역에서 첫 명절을 당하여 외로움을 느낄 듯 하니 그들한테 가서 하루 즐겁게 놀자고 함으로 감사일의 순서는 결정되었다.... 나는 그날에 지난 것을 다 쓸 수 없다. 다만 나의 가장 느낀 바 사실 한 가지만 기록하려고 한다. C와 S가 유하는 방 안에는 조선 지도, 경치, 성구, 선비들의 훈화들을 벽에 붙였고 한편 벽에는 종이에 싸고 또 싼 이상스러운 종이 보자기 하나가 걸렸는데... 일행은 그 보자기를 내려 헤쳤다.

... 한 봉지는 전라도 논에서 취한 흙이오. 한 봉지는 평안도 밭에서 취한 흙이라고 한다...그 흙의 냄새를 맡는 그 순간 나의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감각과 느낌을 감하였다... 그리운 고국 언제나 다시 만나볼까? 그 흙을 가지고 온 이는 S다. 그는 평양 북촌 사람으로 농학에 뜻을 두고 장차 농촌운동에 헌신하려는 청년이다. 그가 농촌에 뜻을 둠이 개인의 취미도 취미려니와 인구의 8할 이상을 점령한 피폐한 조선 농촌을 목도할 때에 깊이 사명감을 느낀 것이라고 한다. 농촌에 뜻을 둔 청년으로 조선의 땅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국의 흙을 이곳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런 보물뿐 아니라 그 이상의 보물이 반드시 있을 줄 믿는다. S는 당년 이십세의 청년이다. 청년이라기보다 소년이라고 함이 가할 듯하다.

그는 조선이 임의 일본에게 병합을 당한 뒤에 났고 교육을 받았다. 그의 조선을 사랑하는 진정 나는 모르는 동안에 그의 앞에 머리가 숙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3월 20일에 국민회 주최로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었던 도산 안창호 추모식

그가 한번은 어떤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하였는데 그 설교의 대요는 '조선 청년아 대고구려 정신으로 돌아가자'함이었다... S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청춘에 홀로 된 어머니의 외아들로 양육을 받아 오늘까지 온 것이다. 그 어머니는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S를 교육하느라고 혹은 평양을 혹은 동경을 상상키 어려운 곤란을 당하였다고 한다. S는 원대한 뜻을 품고 지난 8월에 혼자 미국에 있는 그 조부의 알선으로 미국에 왔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어머니는 오직 하나인 그의 외아들 멀리 태평양 건너로 아들을 보낼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아들 된 S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작별하던 그 순간에 아들을 격려하여 '나는 너를 조선에 바친 조선의 아들이니 나를 위하여 조금도 생각지 말라'하는 말로 석별의 말을 끊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나는 그 어머니가 S에게 보낸 편지의 한 절을 들었는데 그 편지는 S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편지의 답장이었다. 그 편지의 일절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우는 녀석 장차 무엇하겠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울지 말고 조선을 생각하고 울어라' 하였다. S가 그러한 현모를 둠이 또한 복된 일이다. 감사일을 당하여 감사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나는 그날에 조국의 흙냄새를 맡아봄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를 떠나서 황혼을 안고 돌아오니 밤 9시였다.

1939년 6월 상항에서 열린 감리교회 연환회는 가주에 5개 처의 한인감리교회에 총 350여 명의 교인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했고, 한인들이 나성으로 급격하게 이동함에 따라 나성감리교회의 사역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본 연환회에 참여하였던 이경선 목사는 그달 25일 오크랜드 한인감리교회에서 설교했다. 그의 설교의 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라'였고, 교인이 많이 감동하였다.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이경선은 담임목사 이진묵을 돕는 부목사였다. 당시 교회는 나성 웨스트 제36 프레이스 909번지에 있었으며, 등록 교인 130명 중 활동 교인은 85명이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45명이었고, 엡윗 청년회에서 21명이 활동했다.

이듬해 본 교회는 연회 산하 선교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500달러로 예배당 대지를 구매했고, 선교부는 3,00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성 선교회는 건축비로 1,000달러를 약속했지만, 교회 위원회는 건축을 위하여 더 나은 상황을 기다렸다.

잠정적으로 본 교회는 버몬트와 제퍼슨이 만나는 곳에 있는 굳 템프러스 홀에서 예배를 드렸다. 1943년에는 1941년에 비해 등록 교인이 20명이 증가한 150명이었으며 활동 교인은 15명이 증가한 100명이었다. 주일학교에는 5명의 교사가 25명을 가르쳤고, 엡윗 청년회에는 35명이 활동했다.

와싱톤 주립대학

이경선이 1943년에 미국 내 한인 선교사역을 떠났다. 그해 7월 상항에서 국방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그해 11월에 시애틀의 워싱턴주립대학의 조선어 교사로 초빙되었다. 1945년 3월 새조선을 출판했을 때 그는 조선혁명운동 투사로 소개된다. 그가 발표한 혁명 이론과 방법을 서술한 150페이지의 이 책은 정가가 1달러로 우송료는 10센트였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총서기로 활동하다가 1949년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미제 간첩으로 생을 마감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Tel.(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8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인격성장을 위한 리더십원리

목회자는 확실한 소명의식 아래 인격과 자질 훈련에 최선 다해야
탁월한 생각 구도, 시간활용, 고난과 시련, 지혜와 행동이 기본요소

교회의 현주소

현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지만 최근에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는, 리더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전문가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만 가지고 평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지식과 씨름해야 지혜를 깨닫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목회자는 세미너리를 졸업하면 공부를 끝내 버린다.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는 정보와 사고방식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안 한다. 둘째는, 인격과 자질의 문제이다. 영적리더의 부도덕성과 교회의 부조리가 사회문제가 되어 신문이나 TV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었다. 영향력을 미쳐야 할 리더와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The Reformed Pastor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명예의 노예, 이성과의 부도덕한 파문, 품위의 상실, 저급한 교양수준, 예의범절에 대한 경시, 이중적 인격, 성실성의 부재, 그리고 학위 취득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질을 실추시키는 영적리더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청교도 리더였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그의 저서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에서 "목회 사역을 다른 평범한 직업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목회가 일 자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일이 그리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영적리더는 소명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그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인격과 자질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율법과도 같은 완벽한 영적 리더의 이미지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을 리더 스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주 예수를 닮아 가는 영적리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리더의 인격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표면적인 것에 현혹되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그 사람의 인격의 고귀함과 진실성을 시간을 갖고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요소를 근거로 섣불리 결정해 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외적 요소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목사를 선택한다. 인간의 근본 되는 본질보다는 외적 차림새를 우선시하며 사람의 진실됨과 신뢰성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인격은 이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질하고 불에 단련시켜야 비로소 완성된다. 훌륭한 인격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며 인격은 마음의 열매이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인격이 리더십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인격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격 성장을 위한 4가지 리더십원리

선한 마음은 훌륭한 인격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약속한다. 선한 마음을 가꾸는 데는 다음의 네 가지 리더십의 원리들이 필요하다. 어느 한 가지라도 간과하면 인격은 함량미달이 되고 말 것이다.

①탁월한 생각의 구도: 영적인 기준 없이 세상이 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역은 가능하다. 그러나 리더가 행동하는 것들이 도덕적 현실이라는 완전체계에 부딪칠 때 귀가 따가운 경고음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탁월한 생각의 구도는 리더의 일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해 주며 또한 삶의 지혜와 역량을 높여준다.

②시간의 활용: 인격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은 낭비하는 인생에게는 적이지만,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가 된다. 인격은 한꺼번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형성되어 간다. 인격은 급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③고난과 시련: 시간에 따른 인격 형성의 요인 중에 고통의 압력이 있다. 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물길이 하루 동안에도 바뀔 수 있다. 탄소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고난과 시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인격 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④지혜와 행동: 수없이 개발해 온 인격은 결국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집약된다. 그것은 진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바른 결정을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부른다. 지혜는 바르게 적용되는 지식을 말하는데 인격은 현명한 결정에서 비롯된다. 현명한 선택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상황판단 뿐 아니라,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끝마칠지에 대한 분별을 필요로 한다. 세상의 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일치된 의견에 불과하다. 투표해서 결정되는 의견인데 그것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는 것뿐이다.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나 반대와 상관없이 옳은 것, 최선의 것, 선한 것을 찾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훌륭히 하려면 지혜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우유부단은 나쁜 인격에서 오는 습관이다. 현명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언제나 인격의 핵심에 자리한다.

인격은 포장된 채 현관에 배달되는 택배상품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없다. 인격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신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탁월한 생각의 구도, 시간의 활용, 고난과 시련, 지혜와 행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서 비옥해진다. 급변하는 세상과 사회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개인의 인격보다는 성공과 출세를 가능케 하는 재능에 더 관심을 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가 출세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는 무조건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 받고 있으며 절대 진리의 상실, 비 진리의 득세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튜닝의 삶'

한국에 계신 절친한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다고 보내오셨다. '행복시소' 책 제목이 좋다. 내가 낮추면 상대방이 올라가고 상대가 낮추면 내가 올라가는 시소처럼 그렇게 행복은 자기를 낮추고 맞추고 상대를 높이는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한다.

그렇다. 우리 삶에 터닝 포인트는 일생에 몇 번 밖에 안 오지만 매일의 생활 습관과 반복하는 일상을 튜닝하며 사는 일은 수시로 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대로 화려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바다처럼 쌓여서 살아도 살아도 자꾸만 잘못 사는 것 같은 죄스러움 때문에 오늘도 내 영혼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흘려서 마음의 때가 씻어지고 죄악의 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다면 며칠 밤이고 며칠 낮이고 흘려도 좋으련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판단해대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데나 퍼져 있는 들꽃같이 제멋대로 자란 우리의 모습을 가지치기의 아픔을 통해 튜닝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고맙고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 그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취미와 놀이를 찾아 헤맨다. 지금 하는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서 이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서 하루의 삶이 그렇게 버겁고 지겹기만 하다. 이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를 사랑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다. 그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신나는 삶을 살지도 또 성공적인 삶을 살지도 못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오늘 삶의 튜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는 그야말로 일과 놀이와 취미가 따로가 아닌 하나로 어우러진 삶이 될 때 그 삶은 진짜 신명나는 삶이 되리라.

그렇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리라. 그것이 있어야 아무리 힘겹고 고된 일들로 마구 흔들려도 또 다시 우뚝 서게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다. 큰 문제는 크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작은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또 반대로 아주 작은 일에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지며 가슴이 뭉클해 한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성도님의 주머니에 넣어준 타이레놀 한 알, 아이의 도시락 속에 넣어준 사랑한다는 쪽지 한 마디, 남편 카톡에 보내준 당신 때문에 산다는 한 문장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겹도록 매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며 뭉클뭉클 행복을 느끼며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이 멋있다. 그래서 이곳 텍사스에는 산도 강도 없다고 투덜대던 입에서 이젠 저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감동이 터지고 감사가 나온다. 울타리도 높은 산도 없이 펼쳐지는 끝없는 들판처럼 우리 마음을 낮추고 낮추면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쉼을 주는 평온한 삶이 찾아오리라는.... 삶이 튜닝된 것이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신비로운 만남의 축복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만남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고 신비로운 섭리가 있는 듯합니다. 전혀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태어나 의도하지 않는 부모가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고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의 신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축복입니다.

룻이란 여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주름이 펴지게 되고 그 인생의 불행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효부 룻을 만남의 신비로운 은혜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에 복을 받은 가문의 여인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그 행인은 그 만남을 통하여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의도하시는 뜻이 있으시지만 일단 인생의 길에 강도를 만나다는 것은 결코 만남의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살다가 내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강도를 만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이 소중한 건강을 질병이란 강도를 만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이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불행이란 강도를 만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이 소중한 신앙이나 명예나 지위를 강도 만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주의나 실수로 강도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만남의 축복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당하는 불행한 만남의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 하실 때에 분명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남도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일터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때부터 만남의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때 부터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때부터 만남의 주체자인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때 부터 나의 만남의 대상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심으로 복된 만남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금년 부활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만남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여야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제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함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간증은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기에 객관적으로 일반화 하는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임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팜스프링 맞은 편 케이블카가 걸려 있는 높은 산 너머에 미국인이 경영하는 수양관에서의 체험입니다. 그곳에서 영성집회가 있었고 3박4일의 일정 중에 마지막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 수요일 밤 집회 시간에 세족식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어 세족식을 당하게 되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둘러선 사람들이 찬양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세족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초저녁이고 제주도가 고향인 조 씨 성을 가진 한국인 남자 집사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데 갑자기 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조 집사님이란 분이 제 발을 씻어주는 데 놀랍게도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발을 씻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목사라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 울었고 이민교회 목회를 한다고 허덕이는 이 불쌍한 어린 목사를 찾아오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친절과 사랑에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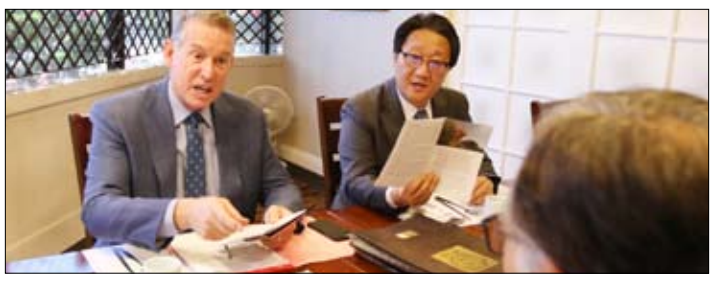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밤의 체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어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금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미주지역 한인총회 일정 발표

각 교단 4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주지역 교단 한인총회들의 총회 일정이 발표됐다. 오는 4월 22일 C&MA, CRC,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를 시작으로 6월 10일 남침례회 한인총회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다음은 2019년 미주한인총회 일정이다.

날짜	교단	장소
4/22-25	C&MA	〈NY〉뉴욕어린양교회(박윤선 목사)
	CRC	〈VA〉Crown Plaza Washington NAtional Airport
	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CA〉코로나 감사한인교회(백승찬 목사)
4.23-26	예장미주합동총회	〈AK〉Alaska Inlet Tower Hotel
4/29-5/2	KUMC	〈FL〉남부플로리다UMC(이철구 목사)
4/29-5/3	미주성결교회	〈MD〉워싱턴한인성결교회(윤광훈 목사), Falls Church Marriott Fairview Park
5/7-8	기감미주자치연회	〈CA〉나성동산교회(이경환 목사)
	UPCA	〈NV〉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강준수 목사)
5/7-9	KPCA	〈CANADA〉캐나다 밴쿠버 삼성교회
5/20-23	예장합동해외총회	〈CA〉성민장로교회(정신구 목사)
5/21-24	KAPC	〈CA〉힐튼LA공항
	NCKPC	〈FL〉Rosen Plaza Hotel
6/10-13	남침례회한인총회	〈AL〉First Baptist Church Pleasant Grove



APU 수석부총장 데이빗 빅스비 박사와 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가 최근 불거진 APU의 LGBT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과 다르다" ...한인언론과도 교류 다짐

아주사퍼시픽대 동성애 왜곡보도 관련 기자회견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이하 APU)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최근 불거진 동성애 관련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왜곡보도 된 것에 대해 학교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로텍스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석부총장 데이빗 빅스비 박사와 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가 참석했다.

데이빗 빅스비 박사는 "APU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Human Sexuality), 즉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며 이러한 내용은 바뀐 적도 바꾸려고 한 적도 없다"며 "이는 APU는 학교 신앙고백서이자 헌법인 'What we believe God'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 가이드북, 교수 가이드북, 직원 가이드북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박사는 "APU는 불신자 입학은 물론 LGBT의 입학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APU에 재학하려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가이드북의 내용은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스비 부총장은 "APU가 LGBT 성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샌가브리엘밸리 트리뷴지의 보도가 크리스천포스트, 크리스채너티투데이 등에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APU는 LGBT 성향으로 전환된 적도 그렇게 한 적도 없다는 내용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학교방침에 대해 전달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로 참석한 조명환 목사는 "APU는 물론 주류기독교계의 소식은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의존하게 된다"며 "APU에 한인언론 담당부서가 있어서 학교 동향에 대해 알리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최근 발생된 동성애 관련 보도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지적했으며 빅스비 부총장도 조 목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CRC 레조네이트가 주최한 글로컬 미션 컨퍼런스가 또감사선교교회에서 'New Wineskins for Mission Everywhere'라는 주제로 열렸다

'New Wineskins for Mission Everywhere'

CRC 글로컬 미션 컨퍼런스 성료

북미주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A. 이하 CRC) 레조네이트(Resonate)가 주최한 글로컬 미션 컨퍼런스가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New Wineskins for Mission Everywhere(눅5:33-39)'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됐다.

대회의 표제도 매우 의도적으로 New Wineskins에 대한 탐구로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진정 의도적으로 옛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를 대조해서 생각하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올드-와인스킨(옛 가죽부대)을 마음에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먼저가 계시면서 그 자리에 현존하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제자들/일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새 가죽부대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것을 목표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대회를 시작, 누가복음 5:33-39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했다. 본문을 여성 참석자 한 사람, 남성 참석자 한 사람이 각각 차례대로 다 읽는 것을 참석자 전체가 듣고 들은 다음에 나누어 앉은 테이블에서 테이블 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각 테이블에서 나누어진 요점들을 다시 정리해서 돌아가면서 전체 참석자가 들을 수 있게 나누는 순서를 가졌다.

저녁 세션에서 레네 빠띨랴(르네 빠디야)의 딸인 루스(룻) 빠띨랴 드보리스트가 나와서 그 본문이 갖는 의도와 의미에 대한 나름의 전반적인 해석과 적용을 제시했다.

루스는 "본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교단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에까지 폭넓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전 지구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묵은 포도주의 좋은 점들을 보존하면서 또 묵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손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포도주 가죽부대를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도전했다.

그 후 다시 각 테이블에서 루스 빠띨랴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난 후 떠오르는 점들, 인상적인 점들, 그리고 질의 사항 등을 서로 나누고, 다시 루스 빠띨랴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가 강사로 나서 ANC온누리교회의 선교 중에서 특히 티후아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선교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주는 선교'를 하다가 올해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가르치고 키워냈던 현지인 사역자들과 파트너로 동역하는 형식으로 선교 패턴을 바꾸었는데, 이 호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들도 주체적으로 선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글로컬 미션 서밋(Glocal Mission Summit)은 CRC 안에 있는 레조네이트(Resonate)라는 조직에서 개최한 컨퍼런스다. 이 레조네이트 조직은 CRC의 선교부로 이전에는 국내선교부와 국외선교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 교단 내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고, 이 두 선교부서를 통합해 이름을 Resonate라 붙였다. 그러므로 이번 컨퍼런스는 북미주개혁교단의 선교대회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박준호 기자〉

WMU 바이블아카데미 복음서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송운철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유앙겔리온과 복음서 형성단계'

WMU 바이블아카데미 복음서 특강, 강사 송운철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바이블아카데미가 주최한 복음서 특강이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송운철 박사(본교 신약학 교수)는 '유앙겔리온과 복음서 형성단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운철 박사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좋은 소식을 뜻한다"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약복음서들이 생겨나기까지 단계를 보면 △첫째, 예수님 사역 △둘째, 사도들의 선포 △셋째, 복음서 등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전 구전시기가 있었고 예수전승들이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시기에 설화와 언설(예수님 공생애 기간 어떤 시점에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것과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고 말씀만 남은 것)들은 독립적으로 회자됐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맥락과 동떨어져서 예수님의 전승이 회자되고 전해지고 있었다. 구조나 내용에 따라 예수전승이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WMU 바이블아카데미 복음서 특강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런천콘서트가 한빛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소프라노 에스더 진 씨와 베이스 이사효 씨가 듀엣으로 공연하는 모습

더텐트 런천콘서트, 한빛장로교회에서

더텐트(대표 다니엘 방 목사)가 주최한 런천콘서트가 4월 6일 정오 한빛장로교회(담임 김상현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2017년 4월 8일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져온 이후 2년 만에 다시 연 더텐트의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박숙희 선교사, 소프라노 에스더진, 베이스 이사효 씨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미국장로교회(PCUSA) 샌가브리엘노회에서 오찬을 위해 열게 됐으며 미국교회 목회자, 필리핀교회 목회자,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출연자들의 무대 하나하나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공연이 마친 후 출연자들과 스텝들에게 공연을 열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다음콘서트는 오는 4월 27일(토) 오후 6시 가주영어학교 특별무대에서 그리고 5월 4일(토) 오후 6시 한빛장로교회(담임 김사무엘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목사회 부활절연합찬양제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하는 부활절연합찬양제가 4월 28일(주)로 한 주 연기됐다. 개최장소인 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의 사정으로 연기됐으며 시간은 오후 6시. 이 찬양제는 장기 투병중인 목회자 회원들을 위해 "부활 예수"를 주제로 열린다.

▲문의: (718)888-0788

뉴저지목사회 미니체육대회 날짜 변경

4월 8일로 예정됐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종윤 목사) 미니 체육대회가 우천으로 날짜를 4월 22일(월)로 변경했다.

▲문의: (201)509-6166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리더십" 세미나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리더십" 세미나 및 가수 남상규 공연이 4월 15일(월) 필라델피아 Keneseth Israel 유대인 회당(8339 Old York Rd., Elkins Park)에서 열린다. 오후 6시30분 저녁식사를 하고 7시15분부터 30분간 공연 후 7시45분부터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는 신철식(이승만기념사업회장, 광운대학 이사장, (전)국무조정실 정책조정차장, 신현확 국무총리 아들), 인보길(뉴데일리 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전 조선일보편집국장, 이승만포럼 대표), 이인수(이승만 대통령 양자, 전 명지대학법대학장). 입장료는 10달러이며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215)549-1948손태수, (267)237-3681김한규, (610)203-6968황준석

씨존(C-Zone) 스마트폰 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 사장 문석진 목사)의 스마트폰 강좌(85기)가 4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100분 강의된다. 강의 내용은 셀카 촬영해 보내기, 손 안의 인공지능 사용하기, 카톡에서 말로 글쓰기, 유튜브 활용하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등을 강의한다. 셀카봉은 아마존에서 본인이 구입후 지참하거나 사전 예약자는 당일 구매 가능하다.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아이폰 위주로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3개월 미만의 초보반이나 인터넷 뱅킹, 인터넷쇼핑 등의 고급반과 아이폰 반 등은 예약 후 개별 지도한다.

▲문의: (718)414-4848

장학생을 모집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유승원 목사)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현재 사역중인 한인 선교사 자녀 중 미국내 대학 입학자(9월)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마감은 5월 31일까지다. 신청방법ㅂ은 교회 웹사이트(http://www.kpcmd.org)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주소는 Scholarship Committee, 27075 W. Nine Mile Road, Southfield, MI 48033

▲문의: scholarship@kpcmd.org

북미원주민 단기선교대원 모집

북미원주민선교회(Native American Mission Association, NAMA)가 주최하는 북미원주민 단기 선교가 7월 28일(주일)부터 8월 3일(토)까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전개된다. 이를 위한 접수마감일은 7월 27일이며 6월 2일부터 7월 21일(오후 6시)까지 8주간 교육이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에서 실시된다. 참가비는 500달러(둘째부터는 400달러),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646)763-4211 김기호 목사 (917)608-1075 함성은 목사

'미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이승만 대강연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명옥 목사)가 주최하는 '미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이승만 대강연회'가 4월 16일(화)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이승만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과 인보길 뉴데일리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또 이승만대통령 양자였던 이인수 박사부부도 참석한다.

▲문의: (718)539-5700

22개 지역별 설교자, 순서지 4월 9일 확정

2019부활절연합새벽예배 지역준비위원장 초청 모임

뉴욕교협이 오는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22개 지역에서 드리는 2019 부활절연합 새벽예배를 위해 각 지역별 준비위원장들을 초청하고 진행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회장 정순원 목사는 "이번 45회기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을 표어로 내건 만큼 회장 자신부터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회기에는 부활절연합새벽예배와 5월 성령화대성회, 7월 할렐루야대회, 가을에 차세대 집회까지 연합집회가 많다"며 각 집회 강사들을 소개했으며, 차세대 강사는 5명의 후보 중에서 이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부활절연합새벽예배 지역준비위원장 초청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5월 10-12일 성령화 대성회 강사는 윤보환 감독(인천 영광교회)이며 △7월 12-14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는 장연철 목사(부산 삼양교회).

이날 업무보고에서 준비위원장 전희수 목사가 타주 출장 중이어서 총무 안경순 목사가 설교자와 순서지 등을 4월 9일까지 교협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파송장로들도 순서에 넣어주기를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마바울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설교 윤세웅 목사, 합심기도 인도 박이스라엘 목사(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위해) 김정숙 목사(뉴욕교계-교협, 목사회, 이사회를 위해),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윤세웅 목사(기독교방송윤리특별위)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목적"(눅23:34, 계13: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하며 "우주 창조 계획과 뜻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으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이를 알 수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든 시간 속으로 2천년전에 오셨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초림의 목적은 창세전에 죽임 당한 어린양의 재현으로, 예정하신 선택자를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로 부활절을 맞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차 준비기도회는 4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 베데스다교회(최현준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진정한 사랑고백을 재정립하라"

KAPC 뉴욕남노회, 이영록 목사 임직예배

KAPC 뉴욕남노회, 이영록 목사 임직예배를 마치고 노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뉴욕남노회가 주관한 이영록 전도사 목사임직 예배가 지난 4월 7일 저녁 뉴욕사랑의교회(이재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안수 받은 이영록 목사는 이재덕 목사의 장남이다.

이재덕 목사는 인사에서 "자신이 목사안수 받았을 때보다 더 가슴을 치는 감동이 있었다"며 "더구나 노회에 총회장님이 계셔서 설교를 맡아 해주신 것"에 대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하며 아들이 신학생 시절부터 '남노회 토박이'임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했다.

예배는 노회장 조덕남 목사 인도로 기도 전현수 목사, 찬양대의 찬양 후 김재열 목사가 설교했다.

김재열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소명의식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내적 소명만 가져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첫째,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재정립돼야 한다, 둘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셋째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넷째 (타인과 타교회와)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말씀)을 먹이고 성령의 생수(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삶을 통해 설교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약, 안수, 악수례, 공포, 목사가운 착용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은 조성희 목사가, 축사는 장석진 목사가 했으며 박준영 목사의 광고 후 이재덕 목사가 인사한 뒤 이영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조성희 목사는 "조심해야 할 것은 돈, 명예, 여자이며 전념할 것은 말씀과 기도,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 성도들을 잘 살피라"고 권면했다.

장석진 목사는 "목사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런 직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안수권, 축도권, 성례전 인도권을 받은 것과 효자된 것"을 축하했다.

이영록 목사는 스토니브룩에서 경제학을 전공(BA)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Div)를 졸업했다. 5월에는 박윤식 선교사(태국)의 장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 2019 부활절새벽연합예배 12지역별 예배장소, 설교자, 발표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은 2019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별 예배장소와 설교자를 발표했다.

뉴저지교협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에서 거둔 헌금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은 12개 지역으로 나눴으며 각 지역 예배 장소와 설교자 및 참가 교회 수는 다음과 같다.

△제1지역-클로스터, 캐스킬, 더마레스트, 하워스, 놀우드, 올드타판/클로스터개혁교회(주선종 목사)/권형덕 목사/11교회

△제2지역-버겐필드, 듀몬트, 뉴밀포드/시온성교회(이수원 목사)/한순규 목사/11교회

△제3지역-에머슨, 힐스데일, 마와, 미드랜드팍, 오라델, 람세이, 리버엣지, 웨스트우드/새언약교회(김종국 목사)/박근재 목사/14교회

△제4지역-잉글우드, 잉글우드클리프, 테너플라이/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김에스더 목사/12교회

△제5지역-파라무스, 페어론, 리지우드, 로쉘팍, 웨스트밀포드/뉴저지방주교회(오범준 목사)/오범준 목사/13교회

△제6지역-헥켄색, 티넥/뉴저지영광교회(정광희 목사)/허상회 목사/11교회

△제7지역-레오니아, 팰리세이드팍/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우종현 목사/18교회

△제8지역-팰리세이드팍, 리지필드/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이정환 목사/13교회)

△제9지역-클립사이드팍, 에리워터, 페어뷰, 포트리/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우종현 목사/12교회

△제10지역-보고타, 리틀페리, 리지필드팍/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 목사)/윤명호 목사/15교회

△제11지역-베이욘, 이스트러더포드, 러더포드, 가필드, 하스브럭하잇츠, 저지시티, 린드허스트, 시라큐스, 유니온시티, 웨스트뉴욕/뉴저지개혁장로교회(박형기 목사)/장동신 목사/9교회

△제12지역-블룸필드, 클리프톤, 리빙스톤, 밀번, 파십파니, 패세익, 파인브룩, 랜돌프, 로즈랜드, 웨인, 웨스트카드웰, 웨스트오렌지, 우드랜드팍/내리연합감리교회(이성일 목사)/이성일 목사/14교회.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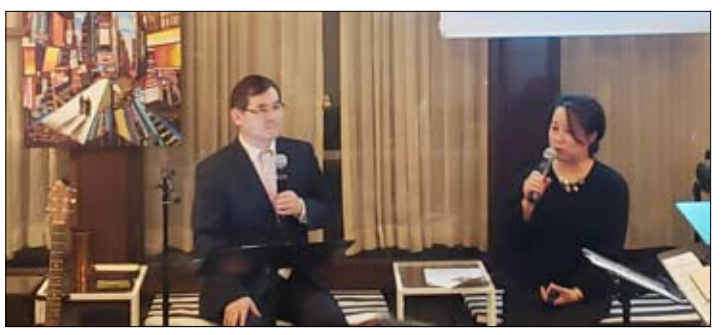
화요찬양모임, 이경림 화가 천로역정 소개

지난 4월 2일 선교단체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의 화요찬양모임에는 초대 손님으로 이경림 화가가 초대돼 자신의 신앙 간증과 맨해튼 배경을 소재로 천로역정을 소개했다. 신앙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끝내는 소망하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이 우리 인생과 같다며 작품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화요찬양모임은 뉴욕과 뉴저지의 찬양을 좋아하는 장년세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토크와 일상을 주제로 풀어나가는 모임으로 노던(169-05 킹덤마이저선교센터)에 위치해 있다.

▲연락처: (646)258-4161

〈기사제공: 화요찬양모임〉



화요찬양모임에서 유태웅 목사와 이경림 화가(오른쪽)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11개 지역서 새벽 5시30분, 6시

남가주교협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일정 발표

2019 부활절 연합예배가 남가주 각 지역에서 연합예배로 드리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30분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각 교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은 한기형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됐다.

한 목사는 이사야 60:3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신앙이 식고 교회가 무기력화 되는 때가 아닌가 한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할 때이며 교계가 일어서야 할 때이다. 2019년 부활절은 좌절과 어려움가운데 있는 이민자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부활절 연합예배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예배에 이어 올 연합예배를 계획하게 된 것을 알리며 "부활절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개교회는 참석이 힘들겠지만, 부활주일 아침 새벽예배가 없는 교회들은 가까운 지역 연합예배에 함께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각 지역 21일 주일 새벽예배 장소와 시간 설교자(무순).

△LA: 새벽 6시 새누리침례교회(박성근 목사), 설교-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오렌지카운티: 새벽 5시30분 설교-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밸리: 새벽 5시30분 주안의교회(최혁 목사), 설교-김선일 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 △벤츄라: 새벽 6시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목사), 설교-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 △사우스베이: 새벽 6시 산샘성결교회(윤석형 목사), 설교-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 △빅토벨리: 새벽 5시30분 빅토벨리복음교회(김은호 목사), 설교-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중부: 새벽 5시30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설교- 방상용(세리토스선교교회) △샌디에고: 새벽 5시30분 북쪽: 팔로마장로교회(서명성 목사), 설교-김진현 목사(선한목자교회), 남쪽: 소망교회(이창후 목사), 설교-정수일 목사(샌디에고한빛교회) △베이커스필드: 새벽 6시 ANC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 설교-여승훈 목사(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EM: Easter Sunrise Service in LA 5시30분 New Life Vision Church.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이성자 기자〉

OC장로협 주최 이상명 총장 초청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순절 바로 알고 보내자' 주제

OC장로협 이상명 총장 초청 특강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김태수 장로)는 풀러튼 에덴장로교회(강래성 목사)에서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교)을 초청해 '사순절 바로 알고 보내자'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에 특강을 가졌다.

황치훈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회장 김태수 장로가 대표기도를 한 후 총장 이상명 박사가 '사순절의 역사와 신학적 의미'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총장은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금식을 행했던 것으로부터 유래됐다"며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C한인회장 김종대 장로의 사회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김 장로는 이상명 총장에게 '물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고난 속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 총장은 "고난이 없는 부활, 부활이 없는 고난은 없다"며 "세상은 아무리 급속도록 바뀌어도 영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장미 빛 미래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신앙인들도 전통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겨자씨성경연구원 주최 남가주 이사야서 세미나에서 김선웅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이사야서의 복음과 신학' 주제

겨자씨성경연구원 주최 남가주 이사야서 세미나

겨자씨성경연구원(원장 김선웅 교수)가 주최한 남가주 이사야서 세미나가 '이사야서의 복음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렸다.

김선웅 교수는 "이사야는 장르와 내용을 따라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사야서는 운문체의 시 형식으로 기록됐다"며 "운문체의 시 형식 속에 이야기 형식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본문 전체적으로 구성 및 그 의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야서를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1부 책망과 징계(1-39장) △2부 회복(40-55장) △3부 소망(55-66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리저월드 한인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

리저월드한인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콘서트

실비치에 위치한 리저월드 한인교회(전인철 목사) 설립 2주년 기념 콘서트가 글로벌메시야미션(대표 노형건 선교사)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한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눠 열렸다. 전인철 목사는 "리저월드한인교회는 타운 리저월드 안에 있는 2천여 한인과 6개의 한인교회가 함께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라 교회를 소개했으며 "리저월드 한인교회 공동체가 한인사회가 실비치에 거주하는 타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긍심을 갖고 주도적 역살을 하도록 함께 협력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건 장로 사회로 열린 1부 순서는 글로벌메시야찬양선교단이 찬양했으며 전인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백현민 목사(주의나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행3:6-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본문에 나오는 치유를 받은 자는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였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 받았다. 그리스도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치유 받게 된다. 콘서트 중 예수그리스도 선포되고 성령역사 일어나는 일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건 선교사 사회로 열린 2부 콘서트는 방송인 이은미 권사가 시낭송 했으며, 케빈김 형제가 댄스를, 그리고 글로벌메시야찬양선교단이 찬양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윤성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윌셔연합감리교회 한어회중 40주년 창립기념예배에서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 목회자 부부합창단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한인 등 4개 회중 함께 축하

윌셔연합감리교회 한어회중 40주년 설립기념예배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 한어회중 40주년 설립기념예배가 7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신영각 목사는 "윌셔연합감리교회가 4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윌셔연합감리교회의 미래가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자"고 말했다.

신영각 목사 집례로 열린 예배는 조에예배무용팀이 특별공연,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 목회자부부가 특별찬양 했으며 본 교회의 40년을 회고하는 영상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이어 이평환 장로가 교회연혁을, 이명숙 권사가 성경봉독, 한어회중성가대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전영호 교수(세인트폴신학교)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겔37:1-24. 요11:32-41, 43-4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흑인, 필리핀, 그리고 히스패닉 회중으로 구성된 미국회중 성가대가 특송했으며 이창순 원로목사가 권면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정영희 목사(드림교회) 축도로 마쳤다.

윌셔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는 이창순 목사를 설립목사로 79년 4월 8일 부활절 첫 예배를 드렸다. 이후 김웅민 목사, 곽철환 목사, 정영희 목사, 황기호 목사가 담임으로 재임했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신영각 목사가 6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윌셔연합감리교회는 한인, 영어, 스패니시, 필리핀 회중이 있으며 1994년 이창순 목사가 총 담임으로 섬기게 됐으며 이후 본 교회 한어회중 담임으로 부임하는 목사가 총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월드쉐어USA 창설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국제구호NGO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 창설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25일(목) 오후 5시 아로마 윌셔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말씀은 권태일 목사(월드쉐어 창립자)가 맡는다.

▲문의: (323)578-7933

남가주 3인 교수 연주회

남가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3명의 교수들이 연주회를 갖는다. 소카대학교 피아노 Wan-Chin Chang 교수, 플러튼칼리지 바이올린 정승재 교수, 호른 Jerry Garvin 교수가 오는 4월 7일(주일) 오후 3시 소카대학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4월 29일(월) 오후 7시30분 플러튼칼리지 극장에서 교수 연주회를 갖는다.

▲문의: (949)480-4278

장학생 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학생 등이다. 마감은 4월 28일까지.

▲문의: (818)662-0400

사역자 모집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조성래 목사)는 청년부, 찬양인도, 아동부를 담당할 사역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 또는 졸업자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sunglaecho@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510)228-8999

월드미션대학교 복음서 특강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복음서란 무엇인가? 그 형질과 본질'이란 주제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복음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송운철 교수이며 참가비는 100달러다.

▲문의: (213)388-1000

제7기 목회자 가정선교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하는 제7기 목회자 가정선교세미나가 오는 5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선착순 30부부)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세미나 강사는 이재근 목사.

▲문의: (562)714-0691

LA온누리교회 무료 대장암 세미나 및 검사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가 무료 대장암 세미나와 무료 검사를 13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실시한다. 무료 검사 대상은 45-75세이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실시된다.

▲문의: (978)473-4256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3회 건강 콘서트가 열렸다

'노인성 우울증' 에 대해 존박 박사 강의

소망소사이어티, 제3회 건강 콘서트 열어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고 카이론 토탈이 후원하는 제 3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4월 6일오전 10시 30분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렸다.

이날 싱어롱을 통해 마음을 힐링 하는 시간으로 막을 열고 이어 임상심리학자인 존 박 박사가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 강의했다.

존 박 박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질병인 우울증은 다른 질병과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인성 우울증 자체가 노화의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환자 중 10% 미만의 환자들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간병인일 경우는 58%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함으로 간병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 어르신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내지는 차이점으로 인해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가족력 및 유전적 요인, 약물남용, 심한 스트레스, 질병들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수면장애를 겪으며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감소할 경우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죽음과 자살에 대해 심각히 생각한다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치료방법으로는 상담과 약물치료, 대안치료들이 있는데, 사회적 활동과 영성활동, 신체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존 박 박사는 참가자들에게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자료를 나눠주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분열 60년만…예장합동 · 통합 공동기도회

양 교단뿌리 조선예수교장로회, 창립107주년기념 장로교 기도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과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이 교단분열 60년 만에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기도회를 연다.

양 교단은 9일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임원들이 지난 4일 간담회를 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07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장로교 기도회'를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서울 총신대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교자는 미정이며 양 교단 성가대로 연합찬양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도회 실무는 양 교단 서기와 사무총장(총무)이 맡기로 했다.

양 교단은 1912년 9월 1일 창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설립 당시 목사 96명(외국인 선교사 44명, 한국인 목사 52명), 장로 125명, 교인 12만7228명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59년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신학적 견해차로 분열돼 각각 승동교회(예장합동)와 연동교회(예장통합)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총신대를 운영하는 예장합동은 1만1922개 교회에 268만여명이, 장신대를 운영하는 예장통합은 9096개 교회에 271만명이 소속된 한국교회 대표 교단으로 성장했다.

양 교단은 90년대부터 강단교류, 연합사업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교류했지만, 총회 임원과 노회 임원 등 교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총신대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도회가 분열을 참회하고 교단의 역사성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도회에는 양 교단이 초심으로 돌아가 선교 2세기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가 있다"면서 "59년 교단 분열 이후 예장통합 총회 임원 전체가 총신대를 찾는 것은 역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식 예장합동 총무도 "양 교단 임원들이 대화 중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 회개하고 교단 간 교류 및 대정부 활동을 위해 공동 기도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무는 "우리 총회 임원들에게 장신대가 생소한 공간이듯 예장통합 임원에게도 총신대가 낯선 공간"이라며 "한국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두 교단이 만나는 기도회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활절 연합예배' 70개 교단 참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1일 오후 3시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2019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다.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라는 주제로 열리며 설교는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이 맡는다.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진호(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 목사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달 외부에서 치른 것을 고려해 올해 부활절 예배는 성만찬이 가능한 실내에서 드리기로 했다"면서 "교통여건이 좋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성가대원 2300명으로 연합찬양대가 특송을 한다"면서 "예배당일 드려진 헌금은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선교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어는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27)가 핵심 요절이다. 예배는 이승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윤성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이 성만찬을 진행한다. 축도는 림형석 예장통합 총회장이 맡는다.

기획위원장 변창배(예장통합 사무총장) 목사는 "예배에 예장통합·합동·백석대신·고신·합신·개혁, 기감,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기하성,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성공회 등 70개 교단이 참여한다"면서 "사실상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 부활신앙을 노래하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도 시민으로 기여하고 싶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종교인 과세 관련 성명 발표

최근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기독교 내에서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은 3일 성명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 생긴 것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운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 과잉 대표돼 나타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번 법안의 효과를 입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윤실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이들은 많지 않다"며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에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자 120만명 넘어"

65개 단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65개 단체는 3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자가 1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가톨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100만9577명이 동참했다"면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도 3차례 11만751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추가 서명자가 7만여명이며, 온라인에서 2만명의 반대서명을 받았기에 총 서명자 수는 120만명이 넘는다"면서 "헌재는 국민들의 여론을 엄중히 인식하고 낙태죄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선동하지만 정작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진실은 숨기고 있다"면서 "반인권적인 낙태를 여성인권으로 포장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원로목회자 권리 · 복지 책임질 한원총 출범

초대 대표회장에 김재용 목사…임원 구성후 '사모' 주제 심포지엄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권리와 복지를 책임질 교계 단체가 출범했다.

원로목회자 300여명은 3일 낮 서울 종로구 김상옥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예배실에서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한원총)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대 대표회장에 김재용(의왕고천교회 원로)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김 대표회장은 한국원로목자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와 부흥사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대표회장은 대회 인사말에서 "한국교회에 원로목회의 새 방향을 설정하고 원로목회자의 경험과 지혜를 전승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회원은 여성 목회자를 포함, 모든 원로·은퇴목회자와 그 사모이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현광희 목사의 경과 보고, 이순덕 목사의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원로목회자에 대한 복지와 후원, 건강과 봉사활동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에 동참하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준영(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사무총장)목사는 "재단과 한원총은 한국교회 성장과 복음사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원로목회자 행사에 시간을 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는 임원 구성을 마치면 '사모'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 전집으로 살아난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전집 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남이승만전집발간위원회(위원회·위원장 이규학 목사)와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연구원·원장 김명섭 교수)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알렌관에서 우남 이승만 전집 발간 기념식을 열고 전집 일부를 선보였다. 공개된 전집은 전체 35권 중 이 전 대통령의 저서 '독립정신'과 '독립정신 영인본', '한국교회 핍박' 등 세 권이다. 위원회와 연구원은 이 전 대통령의 저작 전체를 2026년까지 완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표작인 독립정신은 1904년 한성감옥 수감 중 쓴 저서로 대한제국의 한계와 주변 열강의 정세, 위정자들의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다.

송기성 서울 정동제일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 전 대통령의 전집이 나온 걸 감사한다"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유언한 이 대통령의 유지를 후대가 지키고 이어 나가자"고 권했다. 송 목사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끌어 준 대통령을 기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규학 발간위원장은 "첫 출발로 세 권의 전집이 나왔다"면서 "완간할 때까지 한국교회도 힘껏 도와 이 전 대통령이 남긴 숭고한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연구원장도 "1904년 우남이 옥중에서 펴낸 '독립정신'이 새 옷을 입고 2019년에 국민의 손에 안기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도서관에 가면 김일성과 박헌영 전집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전집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그간의 아쉬움이 사라졌다"고 했다.

천안기독교총연합회 · 신천지, 성경 공개토론

천기총 제안에 신천지 수락…양측 11가지 주제 내고 선별

천안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회장 임종원 목사)가 제안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과의 성경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양측은 조심스럽게 토론 장소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기총 관계자는 "신천지 천안교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후 토론 제안을 수락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토론 장소와 방식 등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천기총이 '인침이란 무엇인가' '14만4000명은 부활했는가' 등 신천지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응용한 11개 주제를 토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천기총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천기총의 토론 제의를 수락하면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토론 제의를 수락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마귀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마귀행위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신천지 내부 용어다. 한국교회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다.

천기총은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저주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제안을 '마귀행위'라 폄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답신했다. 이어 "쌍방의 입장에 근거해 내용증명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이라며 "빨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토론 주제도 새로 제안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와 달, 별' '666의 의미' 등 11개 주제를 제안하며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획기적인 주제들"이라고 주장했다.

천기총은 본래 제안한 11개 주제 및 신천지가 제안한 11가지 주제를 추려 공개토론에 임할 방침이다. 유영권 천기총 이단대책위원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천지 측에서 따로 주제를 만들어 제시한 이유는 토론 당일 현장에서 혼란감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천기총에서는 이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펜윅 선교사 토착화 선교 정신 되새긴다

기침, 선교 130주년 맞아 기념대회 개최

말콤 C 펜윅(Malcolm C Fenwick·1863-1935) 선교사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그의 토착화 선교 정신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캐나다인 펜윅 선교사는 1889년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뒤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모체인 대한기독교회를 창설하는 등 46년간 굵직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겼다.

박종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기침 총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펜윅 선교 130주년을 맞아 국내외 침례교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침례인대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영적 성장 대회를 올해는 세계한인침례인대회로 대체한 것으로, 국내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목회자와 730여명의 선교사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했다.

박 총회장은 또 "한국에서 20년 이상 선교를 했던 분 중 70여분이 살아계시는데 그중 건강이 허락된 30여명을 초청했다"며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 병원 등을 세워 선교의 기틀을 마련해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펜윅 선교사를 비롯해 침례교회에 도움을 준 선교사들의 뜻을 기리고, 앞으로 다가올 침례교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는 22일에는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안희열 침신대 교수는 "19세기에 파송된 서양 선교사들에겐 자문화우월주의가 강했다"며 "펜윅 선교사는 당시 함경도 원산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그 비용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교했고 누구보다 토착인을 귀하게 생각해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던 펜윅 선교사는 1889년 한국에 도착,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했다. 1893년 캐나다로 돌아가 침례교 목사가 된 뒤 1896년 다시 한국에 와서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다. 안 교수는 "원산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펜윅 선교사는 1903년 자신이 훈련한 신명균에게 공주성경학원을 맡겼고, 이후 2년간 12개 교회를 개척하는 신명균의 활약을 보면서 토착화 선교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다"며 "한국 문화를 사랑해 한복을 입고 한글을 배워 성경을 번역하는 등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증명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펜윅 선교사가 1919년 출판한 원산 번역 '신약젼셔'는 개인이 기록한 최초의 신약성경본"이라며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를 '새각시'로, 서기관을 '선비'로 번역해 토착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민경배 박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안 교수와 이광수 박사, 조효훈 박사 등이 논문을 발표한다. 미발굴 자료 및 사진 35점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독교인들이 평화 순례자 돼 주세요"

기감 본부 임직원 80여명 강원도 철원 DMZ 평화순례

한반도의 허리이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 강원도 철원, 이곳에도 봄은 찾아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본부 임직원 80여명이 철원의 비무장지대(DMZ)를 순례하기 위해 찾은 3일 며칠째 불던 차가운 북풍이 멎었다. 순례객들은 강원도 철원군 옛 조선노동당사를 출발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지나 국경선평화학교와 월정리역 등을 방문하며 평화를 간구했다.

이날 행사는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500㎞ 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기감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성도와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순례객들이 첫발을 디딘 곳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조선노동당사. 골조만 남은 건물 사이로 지나는 바람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순례객들의 시선은 분단 시계탑으로 향했다.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64만5456시간 35분 56초가 지난 순간이었다. 지금도 흘러가는 분단의 시간 앞에서 순례객들은 말을 잃었다. 정적도 잠시, 색소폰 연주가 침묵을 깼다. 미국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다니엘 고(27)씨가 노동당사 앞에 서서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는 '통일의 노래'와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으로 이어졌다.

버스에 오른 순례객들은 민통선을 통과했다. 3번 국도에 오른 버스는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로 양쪽으로 넓은 철원평야가 펼쳐졌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모내기를 위해 곧 논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너른 들판엔 봄기운이 가득했다. 가끔 보이는 들꽃은 봄을 재촉하는 듯했다.

버스는 5분쯤 달려 국경선평화학교에 도착했다. 대전차방어용 콘크리트 장벽에서 100m쯤 떨어진 이곳 학교에선 대표 정지석 목사가 순례객을 맞았다.

정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난 후 이 지역의 긴장감이 덜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남북의 평화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평화의 여정은 계속돼야 하므로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순례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앞마당으로 이동한 순례객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안내에 따라 손을 맞잡고 큰 원을 만들었다. 전 감독회장은 "북한 땅이 보이는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했고 '주여' 삼창이 이어졌다.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ABC 사역 관리자

ABC 사역을 운영하는 아이린 차베즈는 조지 메들리의 부인이다. 그녀는 술이나 마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남편 조지가 중독으로 고생하고 교도소를 들락거릴 때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다. 출소 후 새로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이들의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믿어준 누군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소자 가족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만 아이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사회와 리더십에 있어서 조지의 성공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이린의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후회는 없다"-아이린 차베즈

42세의 나는 어린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나에게는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군인이었던 의붓아버지 피터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나는 악몽을 꿀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케팅과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상업 예술가가 된 나는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사는 동안에 "데이빗"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2년 동안 데이트 하다가 결혼했다.

결혼한 후에도 나는 부모님의 성을 따르고 있어서 그의 비밀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 알아요?" 데이빗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조지가 나에게 말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물었다. "당신 이름이 두 개라고 조지가 말했어. 정말이야?"

"아이들이 지어낸 말들을 믿어?" 그는 부인했고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는 위장의 달인인데다가 이전에 마약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몸이 아플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책상 위의 돈더미와 차고에 있는 냉장고 안에 가득 찬 마리화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차고에 있는 모든 캐비닛에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결혼한 지 3년 후 데이빗은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의 본명이 조지라고 알려주었다. 그 때부터 그는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조지가 경찰과 헬리콥터에 쫓기는 장면을 TV 뉴스에서 본 가족들이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수배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했을 때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 뒤에 무죄임이 밝혀져서 풀려났을 때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한동안 헤어날 길이 없었다. 그는 쉬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고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어떻게 수습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 주먹다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시비를 걸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가끔씩 그는 6일 동안 깨어 있다가 7일 동안 계속 잠을 자기도 했다. 하루에 두 번씩 깨워서 음식을 주었고 곧 다시 잠이 들었다. 황달증세로 병원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그를 돌보려면 차라리 그가 정신을 잃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주님,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가 의식을 잃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장실을 다섯 번이나 들락거렸다. 그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몰랐다. 그는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식사시간이 되면 그를 깨워서 음식을 먹였다. 그런 뒤엔 또 다시 잠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이렇게 12년을 살았다. 모텔과 여행용 차량으로 전전하며 음식을 주고 돌보았다. 나는 차마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떠나면 그가 마약과다복용으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너무나 지쳐서 그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에 떠난다면 후에 너는 네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나는 그를 돌보겠습니다. 떠나도 그가 치유되었을 때 떠나겠습니다."

조지는 출소하자마자 곧장 술집으로 가서 싸움을 하는 바람에 다시 체포되었다. 한 달에 네 번 체포된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우리 개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혼자만 돌아왔다. 나는 가서 그 개를 찾아야 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는 곳까지 거짓말을 했다.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 놓고서 몇주 후에 돌아온 적도 있었다. 나는 화를 낼 겨를도 없이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고마워서 밥을 챙겨주곤 했다.

"주님, 저는 외로운 게 싫어요. 그가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얼굴과 눈과 코의 일부를 보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다.

"네가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조지를 위해서 기도해." 조지의 누나는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주님, 이 모든 힘든 경험이 조지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조지를 예수님같이 만들어 주세요. 아니 조지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반복해서 크게 외쳤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를 치유했고 믿음을 굳게 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음성도 들려왔다.

"그것은 네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래도 나는 큰 소리로 선포했다. "예수님, 조지를 당신처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선포했다. 장래의 비전을 볼 능력이 없었던 나에게 시누이는 계속 용기를 주었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삶을 몇년 동안 살았다.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삶이 이어질 때 그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시간이 마치 내게 휴식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언제나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쳤고 그는 늘 누군가와 충돌하고 다퉜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것은 의미가 없이 지나갔다.

2005년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그가 나에게 놀라운 질문을 했다. "잘 지내니?" 그가 변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서 출소 후 천불을 헌금하겠다고 내게 말했지만 처음부터 그 말이 믿겨진 것은 아니었다. 내게도 그의 변화를 믿을 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나 잠깐 상점에 갔다 올게." 그런 말을 하고 나갈 때마다 그는 마약을 찾으러 갔고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사라지지 않았고 잠시 후 돌아왔다. "이제 나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긴 세월 동안 힘들게 한 것에 대해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어." "그래, 미안해." "그게 다야? 나에겐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이 의미가 없어."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죽을까 봐 기다려준 거야."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쳤고 그가 치유되면 떠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기에 이제는 그 때가 된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트럭을 타고 떠나려고 할 때 예기치 않은 음성이 두 번이나 들려왔다. "조지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그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

'조지는 나의 적이 아니다. 마귀가 나의 적이다. 조지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순간 마음의 변화가 생기며 발길을 안으로 돌려서 그에게 갔다. 내가 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조지에게 전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하고 말했다.

그가 변화했다는 것을 믿기까지 거의 일 년이 걸렸다. 그는 마약을 할 때 부드러웠기 때문에 달라진 후의 그의 부드러움에 혼란이 왔다. 그 분별을 위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야, 물러가라. 조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

내 이름 "아이린"은 "평화스러운"이란 뜻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부드러운 거품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 조지는 사랑을 베풀어주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해주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전13:4-8전반부).

하나님은 조지를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조지는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구약 (7)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난 회에 룻기의 위치와 사무엘상·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는 족보로 끝났고, 룻기 다음의 이야기는 다윗이 주인공인 사무엘상·하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고, 사무엘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읽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윗도 왕이었는데, 왜 다윗 이야기는 열왕기상·하에서 기록되지 않고 사무엘상·하에 따로 떼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대리통치권임을 인식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로 분리시켜서 모델로 세우시고, 다윗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 중에서 잘했던 왕들은 다윗처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의 구조를 이해하면 읽기가 참 쉽습니다.

열왕기상·하는 크게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얇은 근막에 쌓여 있는 고기의 부위들이 약간씩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열왕기상·하도 맛이 조금씩 다른 부위로 나누어 보니까 3덩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왕국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왕 이야기이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대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6장 27절까지 솔로몬 이야기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상 3:14'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신신당부 하시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웃 여러 나라들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읽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편집된 시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는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릴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다른 하나는 벧엘에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레위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비슷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혼합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 때부터 여로보암은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좋은 모델이 아닌, 나쁜 모델로 여로보암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등극하는 왕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하는 남방 유다의 역사가 아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등극하는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로 이어지는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앗수르에 망할 때 까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9왕조 19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왕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6:28부터 열왕기하 15:11까지 입니다.

아합 이야기는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왕조까지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아합 이야기'로 보자는 것입니다.

왕상 16장에서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왕상 22:34-39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가 시작되어도 성경은 죽은 아합의 이름을 열왕기하 10장까지 계속 부릅니다. '아합이 저지른 죄의 성격대로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더란' 것입니다. 그 아합의 이야기는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멸망되고,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이야기까지를 두 번째 덩어리, 아합 이야기였습니다.

아합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앗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까지 입니다.

열왕기하17: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했다는 뜻입니다. 정복자 앗수르가 펼친 정책은 혼혈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앗수르 사람 일부를 북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통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태어난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하는 남방 유다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역사가는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방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삼킨 앗수르가 남방 유다도 정복하려고 남방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앗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나라들은 결국 망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 하: ①솔로몬 이야기 ②아합왕 이야기③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모델로 세움 받은 다윗...여로보암은 나쁜 모델로

dsukim@gmail.com

인/터/뷰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

APU, LGBT 관련 왜곡보도...“사실과 다르다”

최근에 벌어진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의 동성애 관련 기사에 대해 APU 데이빗 빅스비 수석부총장과 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 등 학교총장실 관계자들이 9일 오전 11시 로텍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성민 박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해 9월초 그리고 올해 3월 잇따른 저희학교에 대한 LGBT들에 대해 왜곡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지인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왜곡보도에 대해 APU가 대처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박성민 박사는 두 번씩이나 APU가 마치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 학교 내에서도 동성애 행위가 완전 허용된 것처럼 기사작성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언급하며 APU는 학교 신앙고백서이자 헌법인 ‘What we believe God’이 발간된 이후 한번도 LGBT를 위한 정책을 펼친 적도 없으며 펼칠 계획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What we believe God’은 2003년 작성된 후 수정 보완해 2006년 완전히 발간됐다. 인간성(Human Sexuality)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고(성경적 근거 3항)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만 이뤄진다(4항)”고 돼있다.

이 책자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박사는 이렇게 왜곡된 기사가 개제된 원인은 학사부총장(Provost) 마크 스탠턴 박사의 인터뷰가 원인이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에서 LGBT에 대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We welcome you, and we support you’, ‘We welcome you, but we can not support you’, ‘We don’t welcome you, we don’t support you’입니다. 바이올라대학교는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APU는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인터뷰할 때 기사로는 ‘We welcome you’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을 뿐 ‘we can not support you’에 대한 부분은 편집돼 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치 APU가 동성애에 대해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이 됐을 것이고 그 기사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기사작성을 했기에 APU가 하루아침에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스탠턴 박사는 APU는 모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개방대학이라 말을 했다. 그의 발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APU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We welcome you’ 즉 APU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만 생각했을 뿐 ‘we can not support you’ 즉 APU는 ‘동성애자들의 행위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며 스탠턴 박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APU는 불신자는 물론 동성애자들의 입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재학생이 동성행위에 대한 관계가 발견되면 징계에 들어가게 되고 처벌받게 된다. 또한 4월부터 학교의 모든 스텝들은 ‘What we believe God’에 근거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조항이 들어간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경우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박 박사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지지그룹이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오자 마침내 동성애 허용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며 기독교대학 LGBT 학생연합인 ‘브레이브 커먼스(Brave Commons)’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5천명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기사 역시 완전히 왜곡된 것이라 언급했다.

“APU 재학생들이 1만2천명입니다. 90%이상이 보수적이며 ‘What we believe God’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커먼스는 APU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곳에서 언급한 온라인 청원에 응한 5천명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언론지상에 나온 학생가이드북 역시 ‘What we believe God’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기초해 작성됐다며, 학생가이드북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변경된 적도 변경이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데이빗 빅스비 수석부총장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개정작업을 한 것은 학생가이드북이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작업이 됐지만 언론지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부분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박사는 APU가 성경적으로 견고함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입학 때부터 학생들이 4년간 학교생활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리고 4년간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 졸업하겠다고 결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학교생활 중 어떤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채플이었다는 것이다.

“저희학교는 1주일에 채플이 7번 있습니다. 그중 3번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강사는 세계적인 강사가 1년 전에 선정이 됩니다. 채플은 메인채플 3개, 4학년들을 위한 채플, 유학생들을 위한 채플, 강해설교를 하는 칼레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채플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는 채플은 3천명 정도가 참석하고 가장 적게 모이는 채플은 5백명이 참석합니다.”

또한 APU는 중서부지방에서 많이 입학하러 찾아오며 바이블 밸트에서도 입학하러 오기도 한다. 박 교수는 백인들 마인드는 대서양시대가 지나고 태평양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에 걸맞는 서부지역의 크리스천스쿨이 APU라며 이러한 이유들이 학교가 LGBT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성민 박사는 “신앙중심, 말씀중심, 기도중심으로 기독교전통을 지키는 곳은 서부에는 APU밖에 없다”며 “현재 신임총장 선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4주정도 후면 새총장이 결정되고 7월에 취임하게 된다. 120년간 잘 지켜왔던 기독교적 전통이 새총장 취임 후에도 잘 지켜나가게 되기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PU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

‘We welcome you’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 에만 초점

‘we can not support you’ ‘동성애자들의 행위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보도 안해

기/도/칼/럼

불타는 교회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계복음화 사명에 불타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전파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는 불 꺼진 촛대와 같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불 없는 촛대와 같아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가 뜨겁기를 원하신다. 라오디게아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토해 버리신다고 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현대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주님이 교회 문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 뜨거워지라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역경을 돌파하고,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한다. 복음전파사명에 불이 붙어야 한다.

성령님은 뜨거운 영이시다. 불타는 영이시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던 제자들, 이들의 차가운 가슴에 불을 붙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불타는 소원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셨다. 성령님에 의해 초대교회는 불타는 교회가 되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 기적의 불이 타올랐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과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길, 카리스마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한다. “주여, 뜨거운 성도,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bible66@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14)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Kings 22:1,2

1)Josiah was 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He ruled in Jerusalem for 31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didah. She was the daughter of Adaiah. She was from Bozkath. 2)Josia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He lived the way King David had lived. He didn't turn away from it to the right or the left. (NIRV)

▣ WORD & IDIOM

* Josiah: 요시야(이름) * became: become(~이 되다)의 과거 * ruled: rule(다스리다)의 과거 * Jedidah: 여디다(이름) * Adaiah: 아다야(이름) * be from~ : ~출신이다 * Bozkath: 보스갓(이름) * turn away from~ : ~를 외면하다, ~로부터 돌아서다 * to the right or the left: 우(右)로나 좌(左)로

▣ GRAMMAR

■ 1) Josiah was 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요시야는 8세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He ruled in Jerusalem for 31 years.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삼십 일 년 동안 ⇒ 그는 삼십 일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His mother's name was Jedidah. She was the daughter of Adaiah.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였다. 그녀는 아다야의 (그) 딸이었다.
She was from Bozkath.
그녀는 보스갓 출신이다.

* He(S) + ruled(V) in Jerusalem for 31 years(M). = 이 문장은 <주어 + 동사> +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1형식의 문장이다. 뒤의 수식어(구)는 문장형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형식의 문장이다. become 동사와 2형식을 구성하는 Be 동사는 둘 다 불완전 자동사로 뒤에 주로 명사나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등의 보어가 와서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된다.

He is a Christian. He became a Christian.
S + V + N = 그는 기독교인이다. S + V + N =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 become(~ 이 되다, ~ 해 지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는 turn(~ 로 되다, ~ 해지다), get(~ 해지다), grow(자라서 ~ 가 되다), fall(~ 이 되다, ~ 해지다), prove(~ 라고 판명되다) 등이 있다.

2) Josia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요시야(는) 했다 옳은 것(을) 주님의 눈 안에서 ⇒ 요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 what was right는 Josiah did의 목적이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해석은 <~ 한 것, ~ 한 것들> 로 해야 한다. 따라서 what으로 인도된 절은 반드시 명사절이다.

He lived the way ( ) King David had lived.
그는 살았다 그 길(을) 다윗 왕이 살아 왔(었)던 = 그는 다윗 왕이 살아왔던 그 길을 살았다. ⇒ 그는 다윗 왕이 살아왔던 대로 살았다.

* 위의 ( )에 king David had lived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으며 the way는 생략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동시에 앞의 He lived의 목적어이다.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의 해석은 앞의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적 기능을 갖는다.

He didn't turn away from it to the right or the left.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 에서 그것 우 쪽이나 좌 쪽(으로) ⇒ 그는 그 길을 외면하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 He didn't turn away from it를 먼저 따로 해석하지 말고 두 개의 전치사 곧 from과 to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it는 바로 위 문장의 the way를 가리킨다.

▣ STUDY & THOUGH

■ 제 16대 유다 왕 요시야는 부왕(父王)인 아몬이 시해 당하므로 어린 나이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왕하 21:23,24).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와 신앙에 전념한 통치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시야가 다윗에 비견될 정도의 평가를 얻게 된 더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이다.

■ At age twenty Josiah purged idolatry from the lan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왕상11:2-5)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타락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입니다. 출34:16과 신7:14이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자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두 번 만났을 때(왕상3:14, 9:4-9)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에 빠지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문2절에 "통하다"는 뜻은 "오고 가며 상대방의 것을 다 배워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고가며 좋지 않은 것을 배워오면서 서서히 타락한 것입니다.

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왕상11:6-10)

솔로몬이 타락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사명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레27장에 보면 구약시대 장년과 노년의 구분은 60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가니까 왕비들이 집요하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주님 만나서 결산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잊지 말고 더욱 사명의식에 불타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명의식이 흐려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분만 집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왕상11:11-13)

한 가지 더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는 기본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가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기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봐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죽어라고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을 때 나도 고통이지만 자손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왕상11:14-25)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왕에게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대적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을 괴롭혔습니다. 누가 대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심고 인내함으로 심고 잘 단련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왕상11:26-36)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남는 것은 재앙뿐이 없지만 그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한 지파를 남겨둡니다. 유다지파입니다. 이 지파에서 약속하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본문은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예언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운 것은 이방인이 대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솔로몬의 충성된 심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토 내가 너를 취하리니(왕상11:37-43)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취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징계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살아생전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아히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솔로몬을 몰아내려고 대적합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겸손하며 말씀에 더욱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2019년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엘에이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남가주새누리 침례 교회**(박성근목사시무) (213.383.4982)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설교: 신승훈목사(주님의영광교회)

오렌지카운티 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장소: **미주비전교회**
설교: 이서목사(미주비전교회)

밸리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주안의 교회**(최혁목사시무)
설교: 김선일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

벤츄라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옥스나드 한인 연합 감리 교회**(남재헌 목사시무)
설교: 오정택목사(주님의교회)

사우스베이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산샘성결교회**(윤석형목사시무)
설교: 이상훈목사(주비전교회)

빅토벨리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빅토벨리복음교회**(김은호목사),
설교: 김성일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중부지역교회협의회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장소: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시무)
설교: 방상용(세리토스선교교회)

EM Easter Sunrise Service in LA
Sunday **April 21st** at 5:30am.
New Life Vision Church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시무)

베이커스필드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ANC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
설교: 여승훈목사(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샌디에고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북쪽장소: **팔로마장로교회** (서명성목사시무)
설교: 김진현목사 (선한목자교회)
남쪽장소: **소망교회** (이창후 목사시무)
설교: 정수일목사 (샌디에고 한빛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본 광고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 에서 제공합니다.

부활절 축하 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흥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ar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